



우아문화의집

목차

I 우아문화의집 소개	005
1. 우아(牛牙)	006
2.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08
3.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010
II 우아문화의집이 걸어온 길	013
1. 연보	014
2. 우아문화의집 20년	020
3. 우아문화의집 공간의 변화	039
III 주요활동	043
1. 기초 문화·예술교육	045
2. 생활문화 동아리	049
3. 기획사업	066
4. 우아작은도서관	103
5. 아카이브 '우아한 동네이야기'	107
IV 사람들	143





아름다운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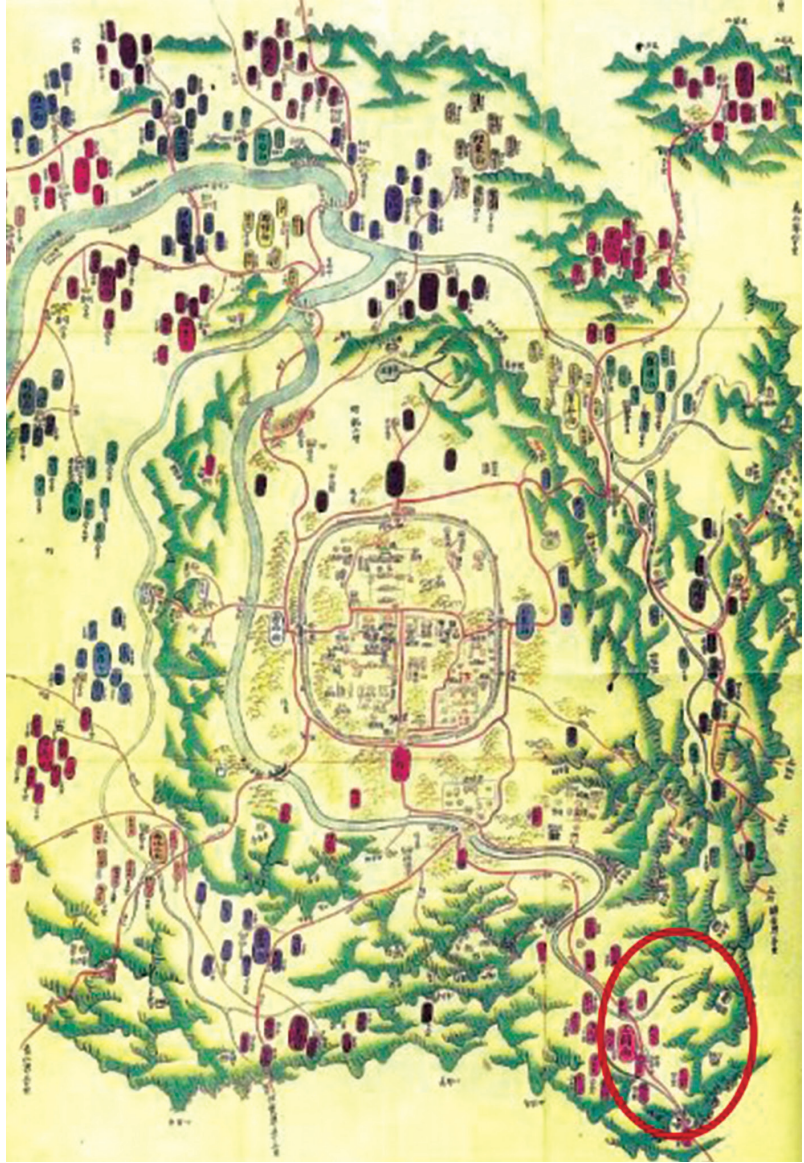
I

우아문화의집 소개

1. 우아(牛牙)

조선시대에 우아동은 전주군 초곡면 일부와 용진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주군 초포면 우방리, 용진면 아중리, 용진면 산정리, 용진면 금상리라는 지명으로 통합되었다.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고 기존의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우아동 일원은 완주군에 속하게 되었다. 1957년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초포면 우방리와 용진면 아중리, 산정리의 중심마을인 석소리 일부를 편입하여 우방리의 ‘우 (牛)’자와 아중리의 ‘아 (牙)’를 각각 합하여 우아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아중리를 우아동 1가, 석소리를 우아동 2가, 우방리를 우아동 3가로 법정동을 구획하였다. 우아동의 또 다른 법정동으로는 산정동과 금산동이 있다. 금상동(今上洞)의 금상(今上)이 ‘현재 왕의 위에 있는 임금’이란 뜻으로 이 마을에 있는 조선 태조의 넷째 아들인 회안대군의 묘가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 두 지역은 1989년 행정구역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전주시에 편입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우아2동과 인후 3동 일원에 아중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면서 1996년 우아동은 우아1동과 우아2동 2개의 행정동으로 분동이 된다. 전주역과 백제대로를 중심으로 기존 1980년대부터 5지구, 6지구 개발에 의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우아동3가의 일부는 우아1동으로, 아중지구를 포함한 그밖에 법정동은 우아2동으로 편입되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발행한 『우아1동 마을조사서』에 따르면, 우아동의 교통로는 전주시의 동쪽 관문으로서 그 기능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이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재도 26번 국도로서 시대를 넘어 역사적인 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우아동3가의 도당산 인근 기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덕원이다. 안덕원은 현재 완주군 이서지역의 앵



전주지도(1872)에 나타난 우아동지역 : 우측하단 원

곡역, 삼례읍의 삼례역 그리고 중앙동 일대의 전주목의 치소 등을 연결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안덕원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방어한 전투 중 하나인 용치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안덕원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안덕원 전투와 그 뒤 이은 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병참기지로서의 호남을 방어한 전투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또한 조선시대에 전주부성과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조선후기에도 진안도라는 명칭의 길이 존재하였으며, 이른바 원님이 사용하는 원님길로서도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2. 도농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우아문화의집 우아문화센터

우아동(우아1동과 2동)은 동부대로와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선 철도를 경계로 도심지와 농촌지역으로 구분된다. 우아2동에 속한 산정동과 금상동의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정동의 경우 아중천 동안과 전라선 동부우회도로 사이의 저평한 대지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정동의 일부는 아중지구 개발과 함께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로 형성되었다. 이 구역의 남쪽으로는 원룸으로 구성된 주거구역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모텔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다. 우아동1가는 우아동 일원에서 가장 낙후된 공간이다. 북서쪽 인원 일부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계곡부 사이를 중심으로 관암마을, 재전마을, 왜망실마을 등의 농촌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전라선 철도로 공간적인 단절이 되어 있어 이곳이 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1993년에 시작하여 1999년에 완공된 아중지구 도심개발사업으로 우아2동도 본격적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우아2동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인후3동과 연결한 서쪽 지역으로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그 외에 많은 지역에는 빌라, 원룸을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의 간선도로와 인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곳곳에 숙박, 유흥, 음식점을 중심으로 상업지구들이 조성되었다.

우아1동 지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토지구획 및 도심개발사업이 진행된다. 같은 시기 기존의 전라선 철도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현 전주 시청에 자리했던 전주역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우아1동은 전주 지역의 교통

의 요지가 된다. 1983년 우아1동 일원에 대한 도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주요 공공시설이 인후동과 우아동 일대에 자리하면서 우아1동은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동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96년 우아1동, 2동으로 분동이 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아중지구의 개발, 서부신시가지 등 추가적인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우아1동 일대는 급격하게 도심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전주역을 통한 관광객의 유입과 한옥마을의 연계과정에서 전주역 앞 백제대로 중심에 조성된 마중길,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주역 신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전주역 앞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우아문화의집 지근거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우아1동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아문화의집은 지리적 특성-도농복합 지역,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개관부터 지역들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기획행사를 펼치고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2016년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문화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으로 거듭 나고 있다.

3.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요

1) 개관

2002년 3월 22일 개관

2016년 3월 30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 완료 및 재개관

2)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3) 활동권역 : 전주시 및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4) 운영시간 :

- 주중 : 09시 00분~19시
- 토요일 : 10시~17시
- 휴관 :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5) 소개 : 우아문화의집은 2002년 3월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정보와 각종 건전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질 높은 문화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놓은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6) 공간구성 :

- 꿈지樂1 : 다목적 홀
- 꿈지樂2 : 다목적 홀
- 꿈틀꿈틀 : 드럼 및 무용 강의실
- 모락모락 : 주민자율공간
- 층층갤러리 : 작은 전시공간
- 우아작은도서관

7) 로고 :



8) 운영조직 :



관장은 문화의집 우영총괄 및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 진행,

운영협의회 운영과 대외적 업무 수행 담당

실장은 재무 및 일반사무, 상설 프로그램 관리 및 강사 관리 전담

팀장은 각종 기획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문화의집 홍보 및 공간 운영 전담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도서 관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운영협의회는

- 문화의집 사업, 예산, 결산 및 주요 운영사항 협의
- 관장, 공무원, 전문가, 지역인사 등 관계자 6인 이상으로 구성
- 실장이 운영협의회 간사로 참여
-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1년 임기로 연임 가능



아름다운 집

II

우아문화의집이 걸어온 길(2001~2020)

1. 연보

2002



3월 22일 우아문화의집 개관, 한지민속그림, 노래교실, 한지공예, 댄스스포츠 등의 강좌를 운영, 우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맡음

2005

01월 우아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
01월 초등학교생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2004

07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 진행,
10월 우아문화의집과 동신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축제 한마당 개최'

2006

08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2006 전주희망학교'운영,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2007

01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문화창작실에서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11월 한브랜드로 전주바로보기-한지 제작체험 진행,
12월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 수탁자 선정



2008

02월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에서
우아문화의집이 장려상 수상,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2009

- 09월 전주역 광장에서 귀성객 환영 놀이마당 공연 개최,
문화관람실에서 손인형극 및 전통놀이 등 행사 개최.
-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 11월 퓨전국악뮤지컬 프로그램 '우리가족 이야기 보따리' 운영

2010

- 01월 '목공예로 만드는 우리집 새주소 문패' 수업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개최.
- 10월 '주민문화축제한마당' 개최.
- 12월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 우아문화의집 수탁기관 선정



2011

- 05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 선정 '정신장애우 밴드'진행.
- 10월 주민문화축제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개최.
- 11월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 12월 우아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우아동 골목길 아트데이-어울림'을 3일간 개최

2012

03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공모 선정 '즐거운 뮤지컬 학교' 운영,
09월 '우아동 마을지기'수강생들이 전주역 광장에서 주민축제 개최,
10월 주민문화축제'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14

07월 '우리동네 이야기 연극놀이 캠프'운영,
'생활문화마을지기' 운영

2013

03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즐거운 뮤지컬 학교' 운영,
11월 '2013 명주골 어울림한마당'개최

2015

- 03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Goob job! 무대에서 꿈을 잡(job)아라!' 운영,
- 06월 '우리 동네 생활문화디자이너' 운영,
- 08월 전주역 광장에서 '우리동네 페스타' 개최,
- 10월 전주문화의집과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5 전주시 생활문화축제 '뜻밖의 휴가' 개최,
우아문화의집 연극동아리들의 공연인 '우아한 라면 연극제' 개최

2017

- 05월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우리동네 페스타' 개최,
'전주 첫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식' 개최,
- 06월 '전주 첫 마중길 지붕없는 공연장 버스킹 공연' 시작,
- 08월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현장체험활동
'어르신 학교가다'를 전주북초등학교에서 진행,
2017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여름방학 캠프 진행,
- 09월 '꿈단지 어린이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 운영,
- 10월 '첫 마중길 문화제' 개최, 문화의집 연극 동아리들의
공연무대 '2017 우아한 라면연극제' 개최,
- 12월 '첫마중길 자체발광 빛축제' 운영

2016

- 03월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 05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페스타' 개최,
'2016대한민국생활문화축제' 참여,
- 10월 '2016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개최,
- 11월 우아문화의집 실버극단 봄날이 '전북어르신 문화축제'에서 공연,
- 11월 우아문화의집 연극동아리들의 공연 '우아한 라면연극제' 개최,
- 12월 '우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 수탁기관 선정

2020

01월 전주시에서 우아문화의집 직영으로 운영,
12월 (사)꼭두 수탁기관 선정

2019

08월 첫마중길 릴레이프로젝트 '마중길 놀이터' 진행,
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행사
첫마중길에서 개최



2018

01월 (사)한옥마을공동체가 우아문화의집 수탁기관으로 선정,
02월 '2018 전주명인과 함께하는 지붕없는 문화장터' 개최,
07월 첫마중길에서 '주말N첫마중' 행사 협력,
09월 '2019 첫마중길 문화제' 개최

2. 우아문화의집 20년(2002~2020)

2002년 3월 22일 개관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아1동사무소에서 열렸다. 우아문화의집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지민속그림과 노래교실, 한지공예, 서예반, 댄스스포츠 등의 강좌를 열어 교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나갔다. 운영은 우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았다.

2002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재즈댄스 및 한문교실 등 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2004년 7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달 21일부터 3일까지 12일 동안에 걸쳐 간병인 교육을 진행했다. 간병인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병원 실습 등 교육을 마친 뒤 17명의 간병인 교육생을 배출하여,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2004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아문화의집과 동신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우아문화의집 수강생들의 전시와 발표회, 주민노래자랑, 오키리나 연주, 마술 등을 선보였다.

2005년 1월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아문화의집 수탁자로 선정됐다.

2005년 1월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비즈(구슬)공예, 작가교실, 주산교실, 토피어리 등을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했다.

2006년 2월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신기만)가 우아문화의집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위탁기간은 2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관장은 이리농악 이수자인 김영심씨가 선정됐다.

2006년 8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2006 전주희망학교’를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2007년 1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기반시설에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해 국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3년 간 배치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받았다.

2007년 10월

문화창작실에서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전시내용물은 칼라점토를 비롯하여 아동미술, 예쁜 솔글씨, 만화, 서예, T-셔츠 리폼, 가베, 한지공예, 테디베어 등 다양하게 전시됐다.

2007년 11월

인후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과 함께 우리 문화의 원류인 한(韓) 브랜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한 브랜드를 생활화하기 위해 한브랜드로 전주바로보기-한지 제작 체험’을 진행했다.

2007년 12월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자로 선정됐다.

2008년 2월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전주시민 한 소리하기’에서 우아문화의집이 장려상을 받았다.

2009년 9월

30일 전주역 광장에서 귀성객들을 환영하는 놀이마당 공연을 열었다. 우아문화의집 문화관람실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인형극, 전통놀이, 송편나눠먹기 행사를 개최했다.

2009년 11월

퓨전국악뮤지컬 프로그램 ‘우리가족 이야기 보따리’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을 기반으로 이웃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뮤지컬로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

2010년 1월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목공예로 만드는 우리집 새주소 문패’ 수업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새주소 사용의 의무화에 따라 새주소를 홍보하고, 전통목공예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집 새주소 문패만들기 수업의 결과물이다.



2010년 12월

우아문화의집 수탁기관으로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가 선정됐다. 관장은 최경성씨가 선임됐다.

2011년 5월

201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정신장애우 밴드 결성을 진행했다. 협력기관인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아름다운세상 회원들 중 음악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뽑아 밴드를 구성한 뒤 보컬과 드럼,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 등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아 연습한 뒤 12월에 첫 공연을 진행했다.

2011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우아문화의집과 전주문화의집협회, 극단 명태가 주관하는 여성연극집단 ‘수다’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극 훈련을 받아 12월에 창단공연을 개최했다.

2011년 10월

지역축제를 실제 기획하고 운영해봄으로써, 지역민들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우리마을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구성’, ‘문화기획의 홍보와 마케팅’ 등 문화기획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0월 20일에서 21에는 주민문화축제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다.

2011년 12월

우아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준비한 공연을 한 자리에 모은 ‘우아동 골목길 아트데이-어울림’을 3일간 개최했다. 첫째 날에는 소극장 아하아트 로에서 기린중 학생들의 연극 ‘우아동에 내리는 눈’과 동아리 해맞이 예술단의 ‘우리 춤’ 공연, 여성연극집단 수다의 ‘우아한 비빔밥’ 공연이, 둘째 날에는 우아문화의집 2층 문화 관람실에서 정신장애우밴드 아름다운 세상의 밴

드공연과 함께 청소년 자유센터 학생들의 연극 '사마귀 유치원' 공연이, 셋째 날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동지팔죽을 먹고, 달고나 체험을 진행했다.

2012년 1월

우아문화의집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 및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제작하는 연극 '수다', 문화기획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문화기획자양성아카데미',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장애인 밴드 아·세 밴드'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2012년 3월

'즐거운 뮤지컬 학교'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공모에 선정되어 12월까지 총 38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연기와 춤, 노래, 창작활동(극작) 등의 분야에 대해 각각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았다.

2012년 9월

'2012 문화의집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아동 마을지기'가 9월 1일 전주역 광장에서 주민들이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주민축제 '즐거보세! 우아동'을 개최했다. 우아동 마을지기는 우아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연출·운영하는 주민 주도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축제에서는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원들로 구성, 사물난타, 택견, 어린이 댄스, 밴드공연,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과 우아동 사진전, 민속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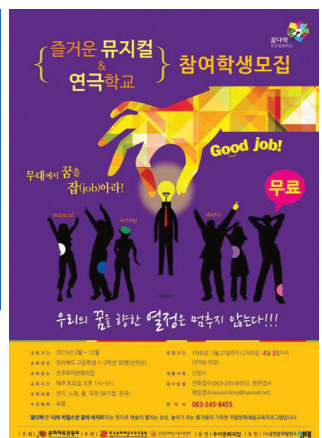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즐거운 뮤지컬 학교'를 운영했다.

2013년 11월

11월 23일 전주역에서 유아동 마을축제 ‘2013 명주골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유아문화의집 동아리들의 공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4년 7월

2014년 문화의집 시민예술사업의 일환으로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우리동네 이야기 연극놀이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됐다.



2014년 7월

7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마을축제에 관련한 문화기획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한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생활문화마을지기’를 운영했다. 이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직접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 봄으로써 축제의 기획자로 참여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3월

2015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인 ‘Good job! 무대에서 꿈을 잡(job)아라!(즐거운 뮤지컬&연극학교)’를 12월까지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과 연기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작가, 연출, 배우, 음악, 안무, 조명, 음향, 무대, 의상 등 분야의지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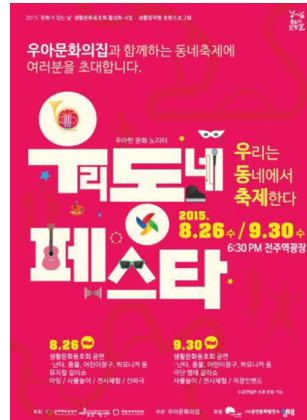
2015년 6월

주민주도형 생활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생활문화디자이너’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총 20회에 걸쳐 진행됐다.



2015년 8월

8월 26일과 9월 30일 총 2차례에 걸쳐 전주역 광장에서 ‘우리동네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생활문화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동네축제를 열어, 동호회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동네축제이다. 난타와 풍물, 어린이 장구, 하모니카 등의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됐다.



2016년 3월

30일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풍물길놀이를 시작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공연과 사진,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우아춘(春)장’, 개관축하 ‘작은음학회’,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우아한 잔치-같이의 가치’를 진행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간은 마주침 공간인 ‘들락날락’, 다목적홀 ‘모락모락’, 주민자율공간 ‘꿈지락1,2,3’, 동아리실 ‘꿈틀꿈틀’로 조성됐다.



2016년 4월

우아문화의집의 ‘무대 위에 꽃봉오리피우다’가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 5월

2016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기획된 ‘우리동네 페스타’가 5월 25일과 6월 29일 우아아파트 내 공원에서 열렸다.



2016년 8월

2016대한민국생활문화축제가 8월 26일과 27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참여와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생활문화축제는 ‘全州(전주), 생활문화시장으로 소풍가다’를 주제로, 문화의집 회원과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을 비롯한 전주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

10월 12에서 14일까지 우아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6 명주골어우름한마당’이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와 우아1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 열렸다. ‘한지손자수’, ‘테디베어’, ‘사진’, ‘북아트’, ‘포크아트’, ‘냅킨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의 전시회와, ‘메이크업’, ‘팔찌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016년 11월

우아문화의집 어르신연극동아리실버극단 ‘봄날’이 11월 2일 익산 국화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전북어르신 문화축제에서 공연하였다.



2016년 11월

생활문화공연예술제 ‘우아한 라면연극제’가 11월 23일에서 12월 25일까지 아하아트홀에서 열렸다. 실버극단 봄날의 ‘봄날’, 직장인극단 청바지의 ‘호야 내새끼’, 주부 여성극단 수다의 ‘사랑’, 청소년극단 꿈친의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등이 공연되었다.



2016년 12월

23일 지역주민들과 생활문화동호회,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잇는 우아한 생활문화축제가 열렸다.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가 우아문화의집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됐다.



2017년 4월

2017 노인문화 활동 지원사업인 어르신 문화공동체 실버극단 '봄날'에 입단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연극 수업을 진행했다.

2017년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페스타'를 열었다.



우아문화의집 주관 '2017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work-shop'이 부안에서 1박 2일간 열렸다.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와 우아문화의집 주관으로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식'이 5월 24일 마중길에서 열렸다.



2017년 5월

5월에서 7월까지 매주 마지막 수요일 2017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동네 페스타’가 전주 첫 마중길에서 열렸다.



2017년 6월

6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첫 마중길 지붕없는 공연장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



2017년 8월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현장체험활동 ‘어르신, 학교가다’를 전주북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2017꿈다락 토요문화학교 ‘Good job! 꿈을 잡(job)으로~!’ 여름방학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



2017년 9월

9월에서 10월까지 '꿈단지 어린이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퍼즐 직접 만들기, 이야기로 조이트로프 애니메이션 만들기 체험, 리사이클
 링 화분만들기, 브로치 만들기, 어드벤처타임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전주문화의집과 함께하는 2017 생활문화축제 ‘뜻밖의 휴가’, 문화의집 오픈하우스를 16일에서 20일까지 운영하였다. 21일에는 첫마중길 위터미러 앞에서 2017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첫마중길 문화제’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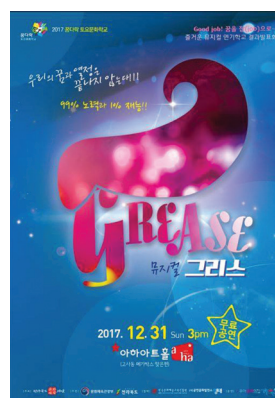
2017년 11월

문화의집 연극 동아리들의 공연무대인 '2017 우아한 라면연극제'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하아트홀에서 열렸다. 뮤지컬동아리 뮤지컬플레이의 'Moon Light Musical', 직장인극단 청바지의 '오디션+재채기', 시민극단 수다의 '그대는 봄', 청소년극단 꿈친의 '뮤지컬 그리스'가 공연되었다.



2017년 12월

우아문화의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Good job 꿈을 잡(job)으로!' 결과발표회 '뮤지컬 그리스' 공연이 12월 31일 아하아트홀에서 열렸다. 첫마중길상생협의회와 함께 12월 22일에서 2018년 3월초까지 첫마중길 일대에서 '첫마중길 자체발광 빛축제'를 운영했다.



중길 놀이터'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 동호회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통놀이체험, 공예체험, 프리마켓 등이 진행됐다.

8월 31일 전북 전주 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수작(手作)' 행사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열렸다. 공예 명인 이신입(전북 무형문화재 제51호 낙중장), 고수환(전북 무형문화재 제12호 가야금) 명인과 함께하는 수작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전주 지역 생활 당인 우리 동네 수작, 일상과 수작이 만나는 곳, 수작 거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0년 1월

전주시에서 우아문화의집 직영으로 운영, 12월 (사)꼭두 수탁기관 선정

3. 우아문화의집 공간의 변화

1) 2016년 이전 우아문화의집 공간



우아문화의집 입구



A.V감상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디어 감상실

각종 시설의 사용대기 공간 및만남의 장으로서 독서와 차를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와 함께 온 이용객들의편의를 위해 아동용 도서 및 놀이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문화관람실

그룹사운드, 연극, 사물놀이, 우리 춤, 요가, 스포츠 댄스 등 대규모의 활동적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공간이기도 합니다



문화창작실

미술, 공예 등의 창작 활동이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자료실

문화의집 시설 이용을 안내 공간과 일반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실입니다.



인터넷검색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2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자료에 대한 출력도 할수 있습니다.

2) 2016년 이후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공간



안내데스크

문화의 집 공간이용 안내 및 도서 대출/반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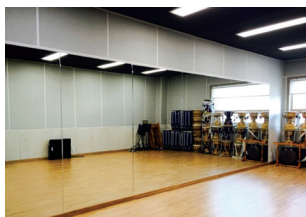
도서 및 휴게라운지

대기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서 도서 및 신문등을 볼 수 있고 간단한 담소를 나눔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동호회 활동공간(꿈지락2,3)

문화참여의 장으로서 실내악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실(꿈틀꿈틀)

문화체험의 장으로서 동아리 실로 활용되는 등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동아리 사물함 배치로 프로그램 활동 하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방음시설을 갖춘 공간.



층층갤러리

2층에 위치한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올라오는 계단을 활용한 층층 갤러리



아름다운이전



주요활동

1. 기초 문화예술교육

1)우아문화의집과 기초 문화예술교육

우아동은 도심권내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이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다. 우아문화의집이 위치한 우아1동 주민센터는 전주역을 중심으로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이다. 우아문화의집 인근 3개 학교가 모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이 많은 반면 문화복지 시설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우아문화의집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기초 문화예술교육과 동아리 활동이 타문화의집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아문화의집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성인문해교육 및 컴맹자를 위한 교육,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캠프 등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개인의 향유·체험·교육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면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졌고, 지역 공동체 참여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POP예쁜손글씨 수강생들이 만든 캘리그래피 동호회 ‘감성 멋글씨’, 풍물교실 수강생들이 결성한 ‘해맞이 예술단’, 우리춤체조 수강생들이 만든 ‘민들레 무용단’, 드럼 수강생들이 만든 직장인밴드 ‘포커스21’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기초 문화예술교육 활동



댄스스포츠



드럼



사군자



어린이 연극



어린이 장구



요가



우리가락



테디베어





풍물



성인문해



캘리그래피



하모니카

3)우아문화의집 장르별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아문화의집에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되었던 기초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기술은 생략하였다.

장르	프로그램명	장르	프로그램명
건강 스포츠	한국무용		서예
	우리춤체조		피부관리&발맞사지
	요가교실		덧칠기법 유화(밥로스)
음악 / 악기	드럼		POP예쁜손글씨
	기타교실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바이올린		한글교실(성인문해)
	풍물		손뜨개교실
	판소리		한지공예
	하모니카		테디베어
	난타		퀼트교실
	우쿠렐레		캘리그래피
어린이	아동미술	취미 / 공예	냅킨아트
	점핑클레이		한국화
	딜레마스터		DIY목공예
	가베		한자교실
	생활과학		문인화
	어린이뮤지컬		보태니컬아트(꽃그림)
어학 -	영어회화		보태니컬아트(꽃그림)
	중국어		한지손자수

2. 생활문화 동아리

1) 실버극단 ‘봄날’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9, 2016

전주 우아문화의 집에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연극동아리 실버극단 ‘봄날’이 있다. 현장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에게 직접 연기지도를 받으며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있는 실버극단 봄날!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우아문화의 집에서 2015년부터 전주시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극단 연극교실을 운영하는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12월 5일 전주 아하아트홀에서 ‘강아지 집속 할아버지’가 실버극단의 첫 공연작품이었다. 2016년 12월 10일 공연한 작품 “봄날”도 동아리 회원님이 직접 창작하여 쓴 작품이다.

인터넷 용어를 알지 못하는 엄마와 대화가 되지 않는 딸, 손주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할머니가 한자리에 모인다. 답답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한다며 인터넷 용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인터넷 용어를 배우며 신세대와 발 맞춰가려는 할머니들의 좌충우돌 신 우리말 배우기!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못다 이룬 꿈을 펼칠 기회가 제공되며, 연말에 직접 연극 무대에서 발표 공연을 가지며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문화 활동가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강아지 집 속 할아버지’ 공연을 앞두고

(실버극단 배우 김균순)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주 우아문화의집 실버극단 ‘봄날’에서 열연 중이다. 2015년 12월 5일 오후 5시 전주 아하아트홀에서 공연될 ‘강아지 집속 할아버지’는 실버극단의 첫 작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버극단 봄날에서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까지 혼자서 겪을 고통과 갈등을 연출한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가족끼리 조금만 따뜻하게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예의를 지키면 화목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무엇이 매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강아지보다 못하게 할아버지를 취급하는 가정이 주변에 흔하다. 하지만 그 대책은 어쩔 수 없더라 말인가. 할아버지에게 강아지하고 집이나 지키게 하고, 몸이 편찮아도 병원에 모시고 가기보다는 강아지와 손자에게 감기가 옮길까봐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할아버지는 차라리 강아지가 되고 싶으셨는지 강아지 집속에 들

어가 멍멍 소리 흥내내어 짓는다. 얼핏 보기엔 노인치매처럼 보인다. 치매가 왔다며 짜증을 내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겠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감안하면 이번 연극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주가 함께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리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게 사는 게 편하다는 노년의 지혜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를 해 드려야 복 받고 살아 갈 것이다. 필자 역시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반성할 점이 많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사회에 더 아름다운 봉사로 보답하며 살아가야겠다.

2) 직장인 연극반 나도 배우다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0, 2017

직장인 연극반 동아리 소개해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나도, 배우다!’ 팀은 다양한 연령대와 초등학교 교사, 치과위생사, 회사원,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계신 연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연극을 배우고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하는 직장인 연극반입니다.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상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연극 연습을 하고 있지요. 연극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저마다의 계기로 연극에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주·조연 배우를 비롯해 음향·조명 스태프 등 연극 공연에 필요한 역할을 맡아 충실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연말 공연했던 연극은 어떤 작품인가요?

‘호야 내 새끼’라는 작품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도 배우다’ 팀의 첫 무대에 오른 작품인데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주인공 호야네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얹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간의 정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12월 공연했구요. 우아문화의집 내의 다른 연극 동아리 3팀과 함께 ‘라면 연극제’에서 공연을 올렸어요. 관객에게 입장료 대신 라면을 받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연극제로, 주위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진행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연극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극을 하다 보면,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외에도 무대 위에서의 동선과 상대 배우들과의 호흡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구성원 간의 교감이 중요한데요, 여러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접촉하며 극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배우다’팀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배우다’팀은 위에서 말한 과정을 조화롭게 해내고 있습니다. 몇 달 동

안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부쩍 가까워졌어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서로 사이가 좋아요. 각기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 텐데도 참여도와 열의가 무척 높아요. 이렇듯 둥글게 지내는 점이 ‘나는 배우다’ 팀이 가진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배우다’ 팀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연말 공연을 무사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면 좋겠어요. 개개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선보이는 것에 대해 용기를 얻길 바라요. 나아가, 팀원들끼리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막을 올리는 날까지 모두가 즐기면서 활동을 마무리 하고 싶어요. 작품 자체도 따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공연이 되었으면 해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관객들도 온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겠습니다.





직장인 연극반 청바지 김 웅 회원

휴학신청서 한 면을 다 작성하고 볼펜 뚜껑을 닫을 때쯤, 난 벌써 지구 반대편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꿈, 외국에서 간호사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공에서 엄청난 기류를 만난 듯 그러한 꿈들이 이뤄지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변에서는 내 휴학을 지지 하기보다는 반대가 많았고 무엇보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웠다. 그 이후로 나는 망상은 아니지만 내 가치관을 방어하기 위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며 동굴을 파고 살았다. 휴학 중에 결국 외국에 나가보는 꿈은 실패했지만 대신 다른 꿈들이 주어졌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원초적 생각부터 내가 뭐해먹고 살아야할지, 내가 잘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꿈 건설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 중 하나는 목소리와 관련된 것인데, 휴학하며 혼자 중얼거리던 것을 성대 모사로 발전시켜보고, 결과로 주변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해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연극을 해봐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우아 문화의집의 시민연극과정 워크샵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워크샵 기수를 이어가는 것도 상당한 보람이 있다. 작년에 처음 들어와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한 연극과정부터 연극을 올린 후까지의 느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대모사식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연극은 서로간의 대화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나는 한 층 더 성숙됨을 느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아 문화의집 연극반 “청바지” 기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올릴 작품 “굿닥터”를 연습 중에 있다. 작 년에 좋은 작품을 올린 것처럼 올해도 좋은 작품 올릴 것을 기대해본다!

3) 일반시민 연극동아리 수다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8, 2015

직장인 연극반(밤수다) 동아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양한 연령대의 연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배우고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하는 직장인 연극반 수다입니다. 거의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라서 밤수다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동아리 결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회원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를 듣고, 누군가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 또 누군가는 친구의 권유로 동아리를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회원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왔다 나가곤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맨 처음 모였던 회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 이번에 극을 올린 '아름다운 사인'에서 조숙자 역할을 하신 이영숙님, 김귀인 역할을 한 박지숙님, 한혜선 역할의 이미라님, 최정미 역할의 송희정님, 이수민 역할의 정다운님, 유선아 역할의 류소희님, 김시관 역할을 한 강이랑님까지 모두 일곱명이었습니다.

무대에 서본 소감은 어땠나요.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회원도 있었고, 몇 번의 경험이 있던 회원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많이 됐든 그렇지 못하든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전 대기실에서 분장을 마치고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순간 긴장감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실수야 있었지만 저희들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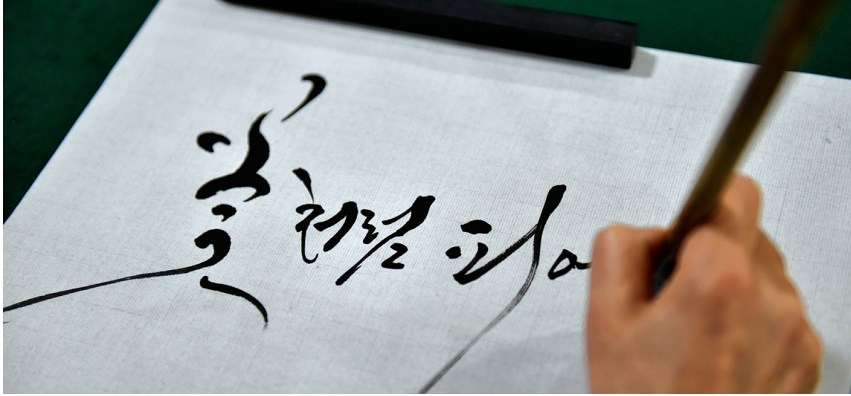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해 주세요.

2014년도 봄, 모든 회원들이 처음 만났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이 연극을 통해서 만나고 지내다보니 정이 많이 들었나봅니다. 굳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연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모습들이 회원들 간의 돈독함을 느낄 수 있는 일면이라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동아리활동을 꿈꾸시는 지역 분들에게 한마디

저희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나눈 이야기는 연극 동아리를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달랐지만 모두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찬란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결국 비슷한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슴뛰는 도전을 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 모임에 나오기까지 많이 망설였답니다. 하지만 꿈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4) 캘리그래피 동호회 ‘감성 멋글씨’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2, 2019

서예동호회(감성멋글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성멋글씨 동호회는 손글씨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평소 펼쳐보지 못한 끼를 발휘해보는 순수한 예술동아리이고 글씨를 통해서 집중력과 마음을 다스리며 또한 회원분들과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결성은 어떻게하게 되었는지

우아문화의집을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서예와 손글씨, 좋은 글귀를 읽고 써가며 정이 들었고 서예에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과 만나기위해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해본 소감은 어땠나요

미숙하지만 열심히 함께 작업하여 다양한 소재로 자신의 숨겨진 실력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임으로서 자신감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갖는다면 회원들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하는 모든 것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전혀 자신감이 없었던 회원이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 자신의 글씨체를 만들어가며 자신감을 얻고 행복해하시는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서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림이나 공예처럼 색채와 공간적 표현과 다르게 평면상에서 글씨만으로 미적 표현뿐 아니라 감정까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 해맞이 예술단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7, 2014

동아리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풍물수강생들로 결성되었는데 쫘 있어 보이는 일을 해 보자고 뭉쳤습니다.

해맞이 예술단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쇠, 장구, 북, 징이 울리면 가는 곳곳의 동네에 북소리가 나겠죠? ^^

해맞이 예술단 동아리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우아문화의집에서 주 2회 연습하면서 친목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등 소외층을 찾아가 시물놀이와 난타 등 공연예술활동을 합니다.

해맞이 예술단 동아리만의 매력(자랑)을 말해주세요.

누가 그러데요? 인물 뽑냐고! 그건 절대 아닌데 (나이가 조금 있지만) 정말 이쁘고 착한사람들이 모여어요.

해맞이 예술단 동아리 감동의 에피소드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자아성취감에 행복했을 때 쫘 어느날 “공연료” 라는 봉투를 처음 받았을 때 와~ 감동이었어요! 역시 좋은 것이여 ~

앞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술단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소외층을 위한 예술공연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동아리팀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겠습니다.



6) 민들레무용단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7, 2014

동아리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춤에 관심이 있던 차, 정년퇴직 후 좋은 선생님을 만나 배우게 되고, 동아리를 결성하여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계시는 시설에 봉사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들레무용단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민들레 흠씨처럼 필요로 하는 곳에 기쁨과 희망이 되고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들레무용단 동아리만의 매력(자랑)을 말해주세요.

비슷한 연령층으로, 서로를 아끼고 가족처럼 지냄. 생기는 것은 서로 나눠먹으며 활동하고 있어요.

민들레무용단 동아리 감동의 에피소드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했을 때, 살풀이 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 이 다 풀린다고 하신분도 계시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우리 춤을 추는 단원들을 보며 감사하고 고맙다고 다들 말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한 여름, 한 겨울 2달을 빼고, 매달(1~2)회 복지시설을 방문, 우리춤으로 어르신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7) 직장인밴드 포커스 21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5, 2012

밴드를 한다는 것은 음악적으로 스킬이 높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밴드를 한다는 것은 나를 표출하는 것 뿐 아니라 나를 관계 속에 밀어 넣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팀이 되어 서로의 포지션을 맞춰가는 모습 속에 기쁨과 슬픔을 담는다. 음악이 좋아서 뭉치는 그들, 직장인밴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음악이야기를 들어본다.

밴드 동아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따분한 하루하루 무슨 좋은일 없을까?

여기 음악을 향해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들 학창시절때나 전문음악인 이야야만 음악을 해야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음악으로 서로에 대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 저희는 우아문화의집 동아리에서 열심히 수련(?)중인 직장인 밴드 “포커스 21”입니다.

밴드 동아리 결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우아문화의집 상설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밴드 수업을 듣게 되었고,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 매주 1회 합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수강생들끼리 마음이 맞아 동아리에 등록. 열심히 정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 생활 중 어렵게 만나 각자 다른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음악적 매력에 빠져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스커 21” 멤버는 총 6명으로 보컬 및 2nd 기타를 맡고 있는 박민규 씨, 1st 기타에 송성용씨, 드럼에 이기영씨, 키보드에 강희용씨, 베이스 백중술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희 포커스 21의 유일한 홍일점 허수연씨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주1회 저희 멤버를 지도해주시는 양노섭, 박경애 선생님이 계십니다.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 및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해 주세요.

결성된 지 1년도채 되지 않아서 공연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되지 않는 공연 중에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면 9월에 “즐거보세 우아동!”이라는 축제에서 공연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실내에서만 연습하고, 공연하다 처음으로 지도강사 없이 실외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바람에 악보 날아가고, 음향문제 등 각자의 연습부족으로 관객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멤버들은 더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활동을 꿈꾸시는 지역 분들에게 한마디

음악에만 관심 있고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취미활동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저희도 그랬듯이(지금도 초보지만) 꾸준히 연습하다보면 재미있는 하모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 중 내가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8) 대학생 연극 동아리 ‘뮤지컬 플레이’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1, 2018

새롭게 우아문화의집에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소감한마디~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공연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신경써주시는 관계자님들에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아리
 활동 및 공연준비에 보다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 연극(뮤지컬) 동아리 ‘뮤지컬 플레이’를 소개해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뮤지컬 플레이는 전북대에 재학 중인 뮤지컬에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모여 직접 뮤지컬을 체험하고자 만든 동아리입니다. 1년에
 2번의 갈라쇼, 방학극을 진행합니다. 갈라쇼란 여러 뮤지컬 테마들의
 부분 부분을 잘라 러닝타임을 늘린 극입니다. 방학극은 말 그대로
 방학동안 한 가지 뮤지컬 자체를 직접 준비하는 극입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극(뮤지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매순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설 때는 새로운 감정과

기억과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이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뮤지컬 플레이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학생이고 아마추어이지만 장르를 안가리고 하고싶은 뮤지컬은 하고보는 열정이 뮤지컬 플레이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동아리가 조금씩 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플레이가 가고자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이다 보니 경제적이거나 규모면이나 소소한 극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동아리원 친구들에게 비록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연말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홍보해주세요!

배우만 45명이 참가하는 뮤지컬로, 총 4개 테마로 진행됩니다. 테마 분위기에 따라 학생들, 연인들의 발랄한 사랑이야기로 웃고 즐길 수도 있고, 옛 일제 강점기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로 눈물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의 귀여운 이야기들로 미소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경험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9) 우아문화의집 등록 동아리 현황(2009~2020)

연번	동아리명	인원	활동내용	등록일자
1	주부연극 동아리<수다>	10	주부로 구성된 연극동아리 활동	2011
2	어르신 실버연극동아리<봄날>	13	어르신 대상으로 연극 동아리 <봄날>	2015
3	직장인 연극동아리<JOB수다>	8	직장인 연극 동호회	2014
4	해맞이 예술단	15	우리춤 동호회	2005
5	<뮤지컬 플레이>	15	대학생 뮤지컬 동호회	2011
6	난타풍물 동아리 <우리동네 난타북>	10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타 동아리	2009
7	문화봉사 동아리<문화지기>	20	문화자원봉사 모임	2011
8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25	청소년 연극 동아리	2011
9	동아리<어린이장구>	10	어린이 장구 동아리	2014
10	동아리<솜씨>	5	바느질, 퀼트 동아리활동	2013
11	동아리<클라리넷>	3	클라리넷 악기연주 동아리	2011
12	동아리<밸리>	7	밸리댄스 동호회활동	2015
13	취미동아리<보드>	20	대학생 취미동아리 보드게임 활동	2015
14	직장인밴드<포커스 21>	1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밴드 동호회활동	2008
15	목공예 동아리<꿈지락>	5	목공예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2010
16	동아리<달콤>	7	홈베이킹	2015

3. 기획사업

1) 마을축제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2004~)

우아문화의집은 2004년부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의 장인 ‘주민문화축제 한마당’을 열어왔다. 2011년부터는 축제명을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으로 바뀌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초창기 주민문화축제 한마당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단순한 발표의 장이었으나, 점차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민의 날 및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가 없는 우아동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지금은 우아동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은 주민들과 함께 일상과 삶에서 출발하는 문화생활을 만들고,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합의 계기이자 문화의집 각종 프로그램 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기획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한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생활문화마을지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첫마중길 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첫마중길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과 전시 관람을 즐기면서 문화의 풍성함과 지역 주민들 간의 마음을 나누는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2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2018 첫마중길 문화제



2)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문화마을지기’ (2011~2015)

“내가 발로 만들어도 저것 보다는 잘 만들겠다.”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감상할 때 혹은 축제를 둘러보고 난 후, 우리 마음에 차지 않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흔히 내뱉는 소리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나서자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러한 분들을 모아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축제, 그래서 일방적이기 만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연출/운영을 담당한 축제. 함께 축제를 준비해 나가면서 다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이들의 흔적이 문화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 운영되었던 것이 바로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 ‘문화마을지기’다. 문화마을지기는 2011년부터 2015까지 5년간 진행됐다. 2012년 9월 1일에 전주역 광장에서 주민들이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주민축제 ‘즐거보세! 우아동’을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원들로 구성, 사물난타, 택견, 어린이 댄스, 밴드공연,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과 우아동 사진전, 민속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5년에는 생활문화마을지기와 함께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2012년 ‘우아한 동네 이야기’에 실린 멘토 박세상의 인터뷰와 수강생 강정희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인터뷰 : 멘토 박세상



선생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의 멘토 박세상입니다. 작년까지 지역문화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불가능공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연구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지기’ 멘토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었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문화 발전 프로젝트 진행 경험들을 주변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 기획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개개인들이 단지 ‘하고 싶다’라는 순수성과 자발성으로 모여 일을 하기 시작했고 곧 그것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공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전주에 와서 우아 문화의 집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문화마을 지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문화마을지기 참여자들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아카데미의 첫째 날이었어요. ‘오늘 첫 수업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아직 20대인 저보다 대부분 참여자들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어리다고 무시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걱정이 처음엔 앞섰죠. 정신을 차리고 첫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개개인들의 이유와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이렇게도 다양할 수가!! 그 이유와 목적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로 바꿔내는 일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경청해주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참여자 분들의 모습이 ‘신선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조한 출석률이 가장 힘든 점이었지요. 참여자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참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찾고 있는 사이에 저조한 출석률이 아니라 참여자 분들 중 정예 멤버가 남아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힘이 들었던 것은 과제를 진행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팀원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대신해서 보완해주는 팀워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경우는 직장인 분들이셨고 따라서 생계나 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는 다음 아카데미 에서는 사전에 각자의 스케줄 조정 또는 그에 맞는 실천과제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했던 두 번의 축제에 대한 평가

예비축제와 본 축제 2번에 걸쳐서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예비축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본 축제를 더욱 잘해보자! 라는 것이 진행 방향이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넉넉했던 예산을 가진 본 축제 보다는 처음에 시범 삼아 해본 예비축제가 우리가 원했던 이상이 더 가깝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본 축제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지요. 그러기에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야 했고,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능동적 참여보다는 수동적 참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뿌듯했거나 즐거웠던 순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비축제의 모든 공연프로그램이 끝나고,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문화마을지기 분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올라서 있던 무대요.

문화마을지기 멘토링을 다 마치고 난 후 소감?

‘참여자분들 보다 나이가 적어서 말이지.’ 라고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저를 합리화 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참여자 분들께서 나이는 어리지만 저를 ‘멘토’로서 챙기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문화마을지기는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문화의 집에게 바라는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아카데미의 기획의도를 처음 들었을 때,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행이 된다면 올해 어렵고 불편했던 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지루하게 길었던 기간. 매번 반복되는 커리큘럼(강의, 멘토링)이 지루한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커리큘럼을 다양화 시켜 구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계획의 공유. ‘따라오라.’가 아닌 ‘저쪽으로 가보자!’ 라고 진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명확한 역할 분담. 다음 기수에서는 아카데미 운영자 & 팀장 & 멘토의 역할 및 책임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서 사전에 숙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참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들!! 덕분에, 인생에 더 많은 경험들과 세상을 향한 더 큰 생각들을 배웠습니다.

아카데미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의 멘토님이셨어요.

진심으로 그 동안의 시간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인터뷰 : 수강생 강정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구슬이 서말 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지금도 열심히 구슬만 수집하는 사람!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가정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전시회, 공연 보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안데스 음악 공연을 좋아해서 축제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문화기획을 공부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연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퇴근길에 우연히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문화마을지기”가 있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이고 딱히 할 일 없는 사람이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수업을 받고 난 후의 느낌과 참여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수업은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 아니라 문화기획실무를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흥분 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오셨고,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지라 다 준비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과 그 이유?

각각의 수업들이 문화라는 주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부 분야는 다른 내용이고 모두 흥미로워서 모든 수업이 다 좋았습니다.

수업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퇴근시간 때문에 수업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6시 30분~7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참여자들이 함께 기획해 나가야 하는 수업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 대상이므로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단기 속성이 아니라 1년 과정으로 운영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의 축제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예비축제를 만들 때 많이 두근거리고 신났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세팅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본 축제는 준비하는데 있어 너무 촉박하기도 했지만,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어서 일을 많이 미루고 관망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번의 축제를 치르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친 후의 느낌?

빨리 다른 수업도 받아보고 싶어요!

다음번에도 이런 수업이 있으면 또 참여하실 건가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참여자들이랑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좋은 분들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만남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구요. 모두모두 사랑 합니다!

고생해 주신 멘토 선생님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박세상 선생님 최고!! 멋져요!! 생각들을 실천하며 세상을 바꾸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아 문화의 집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기회를 주신 우아 문화의 집 관장님,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문화관련 강의를 개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문화마을지기와 함께하는 '체험부스'(2015)



"청춘사진관" 언제나 청춘인 당신에게 멋진 사진을 선물합니다!



"우아한 변신"
그동안 하고싶어도 바빠서 하지 못했던
화장도 곱게 해보고

"명주골 맵시자랑"
직접 그린 도안으로 티셔츠 염색체험도 했습니다!



"EM체험"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즐거운 뮤지컬 학교’ (2012~2017)

우아문화의집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즐거운 뮤지컬 학교’를 진행했다. 즐거운 뮤지컬 스쿨(Joyful Musical School)은 매년 3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라북도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기관의 부재로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뮤지컬을 하는데 중요한 노래, 춤, 연기, 극작으로 나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7년부터는 ‘즐거운 뮤지컬 학교’에서 ‘꿈을 잡(job)’으로 변경하였다. 우아문화의집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이전에 2011년에 이미 청소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아카데미 ‘Dream Flying’으로,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빈민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예술 프로젝트로 직접 춤을 춰보고,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해보고, 공연예술 제작에 참여해 봄으로써 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예술을 자연스럽게 생활로 접근시키며 더불어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연극 ‘두드림(Do Dream)’으로, 학생들이 본 우리 마을 그림을 그려보기, 지역 내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마을 이야기와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음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아가고, 마을이야기와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대본으로 만들어 학교 축제 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지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연극 학교를 운영했다. 6년간 진행된 ‘즐거운 뮤지컬 학교’를 더 소개하기 위해 ‘우아한 동네 이야기’에 기록된 흔적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즐거운 뮤지컬 학교(Joyful Musical School)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5 2012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우아 문화의 집 문화 관람실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각자의 학교에서 일주일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나 안무를 한껏 흥이 나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것도 몇 주 되지 않았다. 문화 관람실에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의 공백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서로에게 살갑게 대해준다. 한껏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 꼭 안



아주기도 한다. 수업 시간 동안의 학생들의 눈은 선생님이나 앞에서 발표를 하는 학생들을 향해있다. 그 날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마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 동안인 것처럼 그날 배운 것들을 연습하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채워나가기도 하고 한 쪽에선 같은 나이 대에 가질 수 있는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기도 한다. 그 날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신의 일을 고민하고 있었던 박재형 학생과 춤 연습을 하고 있는 남세영 학생, 그리고 보컬 선생님인 박세화 선생님 인터뷰를 해보았다.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영화배우 류승룡 같은 배우가 되보고 싶어요!! 자신을 18살 건전한 남자라고 표현한 박재형 학생은 평소 연극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선택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 동아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아 문화의 집에서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



었다.

토요문화학교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박재형 학생은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니 저절로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어서 동네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제일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안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박재형 학생은 안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목에 수건을 두르고 땀을 닦으면서 열심히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안무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인지 중간 발표회 때에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서로서로 안무를 봐주며 연습해서 공연에서 멋지게 춤을 췄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2012년 12월 22일에 공연을 했는데 학교 시험기간과 연습기간이 겹쳐져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특별히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2012년 12월 22일 결과 발표회에서 박재형 학생은 최기현 학생과 함께 연극부인 꿈다락에서 덤 앤 더머와 같은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

을 주는 것을 톡톡히 해냈다.

“요리사도 되보고 싶고, 선생님도 되어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도 해보고 싶지만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영화배우 류승룡 같은 배우가 되보고 싶은 것이에요.”라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다양한 역할들을 그 역할들에 맞게 표현해내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한다.

다음에 토요문화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좀 더 많은 공연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다고 한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공연을 보러 다닐 기회가 많지 않은데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라도 많은 공연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또한 공연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봄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요문화학교에 나와 음치, 박치인 저를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또 못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제가 재미있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선생님들께 이처럼 감사함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우아 문화의 집에 노래, 춤, 연기를 접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문화의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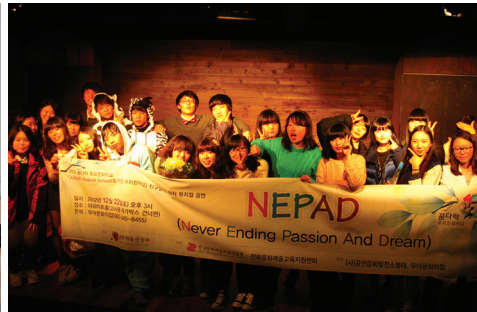
연습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함을 찾고 싶습니다!!

현재 부안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세영 학생은 학교 음악선생님이 주신 유인물을 보고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우아 문화의 집을 찾았다. 평소 수업 시간에 활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지 않게 생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힘들게 느껴지기 보다는 더 많은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한다.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 노래, 춤, 연기, 극작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는데 그 중 남세영 학생은 연기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한다.

“소극장을 처음 접했을 때, 항상 대극장에서 멀리 있는 배우 분들을 바라보았었는데, 소극장은 무대와 관객석의 사이가 좁고 또 무대가 낮아서 그런지 더욱 생생하게 감정이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인물들의 표정과 대사, 몸짓 하나하나와 무대세트, 조명 등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처럼 뮤지컬이나 연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흥미로워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세영 학생은 앞으로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는 물론이고 극작가, 감독, 연출 등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저의 시간이 온전히 연습과 공연에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밤과 새벽을 팀원들과 함께 혹은 혼자 지새우면서 간간히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는 것이야 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 일은 한 단계를 마치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아직 삶을 두루 바라보며 깊게 생각하는 점이 미숙한 이유로, 지금 저에게 가장 가까운 일을 말 할게요. 연습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함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세영 학생에게서 연극과 뮤지컬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한 마디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서 보컬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세화 선생님은 뮤지컬을 전공하시고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작년에 편입을 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시기도 한다.

박세화 선생님은 토요문화학교에서 보컬교육을 맡으시게 된 계기가 현재 우아 문화의 집 관장님이시자 선생님의 스승님이신 최경성 교수님의 제의를 받고 좋은 취지의 활동임에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 어색하고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과연 연말에 공연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셨다고 한다. 그래도 선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것인지 선생님은 아이들의 활기차고 유쾌한 태도에 좋은 에너지를 받아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든 면이 완벽하고 잘 해결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아이들의 출결상황이었는데 프로 배우가 아닌 학생들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 부담감으로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더욱 크게 힘들다고 느껴졌다고 한다.

“앞에서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을 때 가장 기쁜 일은 아이들이 잘 따라줬을 때죠. 제가 가르쳐준 노래와 안무들이 주가 바뀔수록 나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답니다.”

의도치 않게 좋지 못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시며, 특히 학생의 특징에 맞게 한명씩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학생들도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는 시간을 재미있어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듯하다.

우아 문화의 집에도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토요문화학교는 정말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양보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그 어떤 교육보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마지막으로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한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남기셨다.

“학업에 임하면서 토요일마다 또 각자의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너희들!!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파이팅!!”

인터뷰 : 기획자 강이랑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7, 2015

따뜻한 봄날부터 찬바람이 쐬하니 불던 한 겨울까지 토요일 오후만 되면 문화의집은 즐거운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부터 5시. 멀리 무주에서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한 줄씩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모두와 헤어지게 될 일이 슬퍼서 우울하다면서도 아이들의 소감글은 장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모습마저 예쁜 아이들이 귀엽고 흐뭇하여 이곳에도 아이들이 직접 적은 역할 소개와 한줄 소감문을 공개합니다.

제가 우아 문화의 집을 알게 된 건 아직 서늘한 바람이 불던 어느 초봄 즈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다가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적혀있는 조그만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연극동호회 모집-연극을 통해 열정을 휘날리며 일상을 탈피해 무대 속으로!’

한토막짜리 글이 제 눈엔 커다란 입간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글을 발견하기 얼마 전 짧은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의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눈 딱 감고 용기 내어 시작한 연극을 통해서 너무도 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각본작업부터 시작하여 아주 조그만 부분들까지 제법 긴 시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이 가까워질 때쯤엔 매일매일 연습을 했지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과 화합해가고 소통하는 과정, 그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과정,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채우며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과정들이 무대에 오른 단 몇 분의 시간보다 값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보석 같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보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열정을 끄집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은 아무리 일찍부터 가져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시작하는 때가 아무리 늦었더라도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도요. 난 아직 어려서, 라거나 난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라는 건 스스로를 옳아매는 낡은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에 정확한 느낌이 한 번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정의도 어렵고, 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무감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문화예술교육을 검색하면 나오는 온갖 자격증취득의 이야기도 각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별게 없습니다. 토요일문화학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금방 알아채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반짝이던 꿈을 잠시 덮어두었다면,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다시한번 열정을 불태워보는 것. 그래서 얼굴엔 미소가 번지

고 가슴엔 행복이 넘실대는 것. 그리고 그 넘실대는 행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풍성한 아름다움이 사람과 사람사이를 잇는, 우리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행복으로 빛나게 만드는 일. 바로 그런 게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꼭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영롱합니다. 친구들이 공연을 올리기 전 마지막 리허설을 지켜보던 때가 떠오릅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극으로 이뤄져 나갈 때 아이들은 벅차보였어요.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힘들었던 나날을 보내던 시절, 상했던 내면의 것들을 꺼내어 문화예술로써 별을 쏘이듯 치유 받았던 저의 경험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이 시간은 분명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인터뷰 : 기획자 이준선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08, 2016

응답하라! 불타는 청춘!!

토요문화학교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사회의 청소년들은 꿈이 없거나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공연예술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풍부한 감성과 공동체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꿈을 꾸는 청소년들에게 지역특성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연예술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청소년들에게 획일적 진로 탐색을 벗어난 수업을 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꿈을 그릴 기회가 제공되었고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 할 수 있는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아이들과 공연예술분야의 뮤지컬 활동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만이 이루어 낼 수 있는 분야인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자연스레 사회성이 신장되고 단합을 중심으로 협동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작품 연습을 하면서 창의력과 표현력 또한 증진됩니다. 입시위주의 학업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활력을 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아이들이 워낙 재밌고, 즐겁게 연습을 하는데 그중에도 여름캠프를 갔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강의실이 아닌 야외에서 만나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두 들뜬 상태로 재밌게 수업도 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워낙 밝은 아이들이어서 연습할 때도 열정이 넘치고 서로 장난치며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공연 준비하면서도 서로 도와가며 다같이 참여하고, 즐겁게 무대에서 놀았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3학년 친구들은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가서 대학생할 멋지게 잘할거라 믿고 1,2학년 친구들은 2017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인사도 잘하고 기장으로써 아이들 잘 이끌어준 경현이, 일하면서 많이 도와준 부기장 민서한테 너무 고맙고, 경현이랑 같이 꿈다락 친구들한테 든든하게 형으로, 오빠로 있어준 태준이, 민서랑 같이 꿈다락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성실히 해줬던 수희, 주인공 역할들 멋지게 소화해준 예쁜 예진이, 잘생긴 정규, 사회자 멋있게 해준 이삭이, 라이벌 역 잘 소화해준 귀여운 은주, 엄마 역 정말 잘 소화 해 내준 엄마들 도경이, 목소리 매력적인 수연이, 씬 스틸러 승리, 아빠역할 씬스틸러 해웅이, 어색해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본인 자리 잘 지켜준 희수, 주영이, 늦게 들어왔지만 잘 임해준 민지, 초은이.. 다들 너무 수고했고,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희들 어느 한 명 없어선 안 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준 아이들이야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4) 우아한 라면연극제(2014~2017)

우아문화의집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탁단체였던 극단 명태의 특성을 살린 연극 활동이 다양했다. 어르신연극동아리 ‘봄날’, 직장인 연극동아리 ‘나도배우다’, 시민연극동아리 ‘수다’,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대학생 뮤지컬동아리 ‘뮤지컬 플레이’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즐거운 뮤지컬 학교’, 어르신연극동아리 ‘봄날’은 201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극단으로, 어르신 스스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활동가로 거듭나 제2의 삶을 찾고 자신의 스토리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자체 창작해 공연하는 실버 연극단이다. 시민극단 수다는 40~50대로 구성된 주부 연극단이다.

라면연극제는 극단 명태와 우아문화의집이 함께 하는 행사로 우아문화의집의 연극 동아리의 발표회로 시작되었다. 연극 동아리들의 발표회는 아마추어 공연인 만큼 무료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축하공연으로 프로 연극 공연팀이 참여하여 하나의 연극축제가 되었다. 공연료 대신 라면을 기부 받으면서 라면연극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부받은 라면은 도내 양로원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라면이 필요한 곳에 연극제가 끝난 후 전달되었다.



우아문화의집 연극동아리 공연작품

년도	동아리	작품
2014	시민연극동아리 수다	아름다운 사인
	즐거운 뮤지컬 학교	오 마이 드림
2015	어르신 연극동아리 봄날	강아지 집 속 할아버지
	시민연극동아리 수다	봉숭아꽃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창작뮤지컬 러브판타지
	대학생 뮤지컬 동아리 뮤지컬 플레이	season of love
2016	어르신 연극동아리 봄날	봄날
	시민연극동아리 수다	사랑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직장인극단 나도배우다	호야 내새끼
2017	시민연극동아리 수다	그대는 봄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뮤지컬 그리스
	직장인극단 청바지	오디션+재채기, 겨울바다+픽업아티스트
	뮤지컬동아리 뮤지컬플레이	Moon Light Musical



청소년 연극동아리 꿈친 'Hair Spray'



직장인연극반 나도배우다 '호아해새끼'



시민극단 수다 '사랑'



실버극단 봄날 '수다 끝나고'

5) 2017 지역문화전문인력 프로젝트 - ‘꿈단지’ 어린이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

인터뷰 : 기획자 조아라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란?

개인중심적인 사회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전주 지역 어린이들이 모여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이 되어, 직접 기획한 창작놀이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고 건전한 창작놀이문화를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담은 놀이문화 프로젝트 ‘꿈단지’를 기획한 꿀단지(조아라)입니다. 요즘 무한 경쟁사회에서 마냥 천진난만 할 수 없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충분히 놀 수 없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어린이

들에게 생기를 불어 줄 수 있을지? 또한 어린이들도 친숙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 했습니다.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은 9월 9일 첫만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체험과 창의력 증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기획단원이 되어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갖는 어린이기획단으로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0월 21일 어드벤처타임을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축제인 ‘첫마중길 문화제_명주골 어울림 한마당’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기획단 친구들이 직접 놀이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 놀이문화 프로젝트를 하며 보람된 순간?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으며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 아

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때, 그저 아이들이 웃고 있는 것만 지켜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 집니다.

이처럼 소박한 일상생활에 우리는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부모님들과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에 발걸음 해주시는 모든 이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물들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그날은 적어도 하루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이 삶의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고, 매주 토요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꿈단지’ 어린이기획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금은 침체 되어 있었던 우아동 지역 분위기를 밝고 건강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활기로 분위기를 전환 시키고 나아가 발돋움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꿈단지’ 어린이 기획단 친구들이 더욱 반짝반짝 빛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우리동네 페스타(2015~2018)

우리동네 페스타는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동네 페스타는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우아문화의집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으, 작은시민축제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문화예술에 기반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미니축제이다.





2016 열차가 있는 날 생활문화초지 활동의 지평 시연, 우리동네 생활문화초지

우리동네 생활문화센터와 함께하는 동네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동네 페스타

2016. 5. 25 **수** / 6. 29 **수**
장소: 우아아파트 내 공터 PM5:00

2016. 05.25. Wed 생활문화초지 공연 (유물, 신화, 역사, 민속, 전통 등) 생활문화초지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사물놀이, 전사체험	2016. 06.29. Wed 생활문화초지 공연 (유물, 신화, 역사, 민속, 전통 등) 생활문화초지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사물놀이, 전사체험, 직장인밴드
--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보안: 서울특별시 2016. 5. 25. 일차와 2016. 6. 29. 일차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전 안전을 실시합니다.



2017 열차가 있는 날 생활문화초지 활동의 지평 시연, 우리동네 생활문화초지

우리동네 생활문화센터와 함께하는 동네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동네 페스타

2017. **매월 마지막 수요일**
5.31 / 6.28 / 7.26
장소: **첫마중길**
우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2017. 05.31. Wed 생활문화초지 공연 (유물, 신화, 역사, 민속, 전통 등) 생활문화초지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사물놀이, 전사체험	2017. 06.28. Wed 생활문화초지 공연 (유물, 신화, 역사, 민속, 전통 등) 생활문화초지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사물놀이, 전사체험, 직장인밴드	2017. 07.26. Wed 생활문화초지 공연 (유물, 신화, 역사, 민속, 전통 등) 생활문화초지의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사물놀이, 전사체험
--	---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보안: 서울특별시 2017. 5. 31. 일차와 2017. 6. 28. 일차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전 안전을 실시합니다.

7) 첫마중길 프로그램(2017~2019)

전주역 기차에서 내려 전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시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하게 되는 ‘첫마중길’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 전주시의 이미지와 추억을 제공하고자 전주역~명주골 사거리간 백제대로를 ‘전주 첫마중길’이라는 이름의 생태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다. 2017년 첫마중길이 완공되고, 2018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첫마중길이 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우아문화의집은 첫마중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마중길은 단순히 우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의 장소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명에 ‘첫마중길’을 결합하면서 우아문화의집의 새로운 장소성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마을축제인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도 2018년부터 ‘첫마중길 문화제’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

2017 지붕없는 공연장 ‘토요일 토요일은 첫마중길 나들이’

2017년 5월에서 10월 매주 토요일 저녁, 지역주민들이 멀리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거리 들을 만나고, 화려한 무대나 행사장이 아닌 전주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며, 또는 전주역 근처라는 특성상 전주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첫 마중하는 길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흥미를 일으키는 거리를 제공했다.



2018 지붕없는 공연장 '마중길로 들었SHOW'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첫마중길에서 작은 콘서트 형식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



'전주수작' 첫마중길 놀음터(2019)

전주 5개 문화의집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전주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수작콘서트, 우리지역 생활의 달인, 생활문화장터 수작거리 등 지역무형문화재와 달인의 삶과 장인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마중 릴레이프로젝트 ‘마중길 놀이터’(2019)

2018년까지 진행되었던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페스티벌’을 잇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마중지기’를 구축하고,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첫마중길’을 거점화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창작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첫마중길 생활문화축제 '첫마중 놀터'(2019)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019년 4월에서 7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렸다. 지역문화주체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참여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속시키고 자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당근마켓과 함께하는 첫마중길 중고장터 '역전마켓'(2019)

당근마켓 오프라인 중고장터 개념의 지역 마켓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형태의 벼룩시장을 통해 첫마중길을 시민 주도형 '자유공간'으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년 11월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었다.



4. 우아작은도서관



우아작은도서관은 2013년 11월에 공간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1월에 개관을 하였다. 우아동 지역은 도시빈민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시설은 부족했다. 우아작은도서관은 인접지역인 인후동과 호성동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생활화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우아작은도서관은 연극, 영화, 뮤지컬 등 공연예술 도서로 특화된 도서관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지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전주시립도서관 ‘움서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도서관의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우아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독서토론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도서관 방학특강,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성인문해교실, 어르신동화읽기, 어르신책읽기, 한자교실을 운영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북아트, 어린이인권교실, 한권의 책, 병풍책 만들기, 방학특강을 운영했다.

1) 우아작은도서관 프로그램(2018)



가족공예-캐릭터 열쇠고리 만들기



나만의 컵만들기



다육식물-테라리움 만들기



드림캐처 만들기



목공체험-도마만들기



역사만보기-초충도 병풍책



북아트-한지로 수달 수첩 만들기



북아트-한지수달수첩



어린이 인권교실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한권의 책 참여하기



성인문해 어르신-동화책 읽기



에코백만들기



한자교실



컵케이크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2) '문화가 있는 날' 우아작은도서관 프로그램(2018)



도서관 릴리외르 체험하기



책 속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서양미술사!!



지구촌 음악 여행



어른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영화 속 사람 만나기

3) 신나는 예술여행(2018)



키즈국악콘서트-교과서에서 나온 재비



5. 아카이브 ‘우아한 동네이야기’

우아문화의집은 2008년부터 매년 1회 소식지 ‘우아한 동네이야기’를 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민기자단을 모집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편집, 발행하려 노력했다. 우아동의 작은 역사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우아문화의집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눈과 입을 통해 우아동만의 독특한 동네 역사와 일상을 소식지에 담아 내려하였다. 2013년부터는 우아문화의집의 1년 동안의 발자취, 우아문화의집 동아리와 주민 인터뷰, 우아동 이야기를 담아냈다. 2008년에서 2019년까지 총 12호의 ‘우아한 동네이야기’의 기록에서 주민들 인터뷰와 우아동 이야기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1)임덕호 할머니와 ‘우아문화의 집’

인터뷰 : 임덕호 할머니(2011.12. 28.)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3, 2011)

임덕호 할머니와 ‘우아문화의집’의 인연은 아주 길다. 할아버님의 직장이 있었던 익산에서 정년 퇴직을 하실 때까지 20년을 사셨다. 그 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과 조상들의 역사가 남아있는 전주로 이사 온 지 올해로 23년째가 된다.

이사한 해는 1988년, ‘88서울올림픽’이 있었던 때로 우리나라가 지역발전에 힘쓰고 급변했던 시기였다.

그때에 전주역 주변 경관은 거의 황무지나 다름 없었다고 한다. 전주역과 삼거리 식당가와 가든이 있었고 서울과 순천, 여수로 가는 기차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운행하고 있었으며, 주변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한창 집을 짓기 위해 주변의 논밭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옆에 아무것도 없고 전주역만 달랑 있었지.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갈고 콩갈고 우리 집은 열채도 못 지었을 때 내가 이사 왔어. 기린중학교만 딱 있고, 동신초등학교 막 지어놓고, 우아아파트가 생기고 내가

한 오년이따 왔던가. 그때는 포장도 없되어 가지고 우리 사위는 나갈 때 (발에) 비닐을 씌우고 나갔어. 왜냐면 차속에 흠문응게.”

전주역 앞의 큰 도로만 포장이 되었고 주택가에는 비포장 도로였으며, 그 도로주변에 한 열채정도의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사를 오셨다고 한다.

그후 88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주변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사하고 한 달 사이에 집값이 천만원 넘게 올랐으며 주택을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골목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호성동의 상권마저 전주역 근처로 오게 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할머님이 ‘우아문화의집’과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문화의집이 생기기도 전인, 23년 전부터이다. 당시 동사무소의 ‘생활체조’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의집과 인연을 가지고 동참하고 계신다.

전주 우아동에 이사 와서 처음 동신초등학교에서 했던 ‘생활체조’ 프로그램(동사무소 주최)에 참가해 10일정도 되었던 때에 덕진구청에서 하는 대회에 단체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큰딸의 쌍둥이 외손주들을 돌보고 있던 때라 힘든 일과 중에 동참만 한다는 느낌으로 참여를 했다고 한다.

“처음에 덕진구청을 갔던니 거기서 이미 원삼 죽두리 입고 무대에 가서 춤추고 그러더라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일상을 벗어난 이 흥미롭고 새로운 분위기는 할머니으로 하여금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해 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다니지. 동사무소 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장구치는 민요를 시작했는데, 장구가 없어서 무릎으로 (장구를) 대신하다가, 박스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협의회에서 장구를 사줘져 하고, 또 나중에는 문화의집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번창을 하게 되니, 올해까지도 내가 비록 이사는 왔어도 이곳에 친수하게 다니고 있지.”

이렇게 맺은 인연은 과거 우아동사무소 (현재의 우아2동사무소)와 주변의 복지 관 문화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10년 전 쯤 현재의 우아1동사무소와 우아문화의 집으로 연결된다.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들을 통해 젊었을 때 한이 되었던 배움에 대한 그리움을 열 정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아동의 옆인 호성동으로 이사 간 지 3 년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우아문화의집 ‘학생’이시다.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 그것도 했고, 요 가, 스포츠댄스도 하고 또 민요 장구도 하고... 요가 7년 했어요. 인자 호성동으 로 이사 가니까 너무 멀어. 그리고 7년 했으니까 동작을 알잖아 어디가 아프면 어디를 풀어야 하는지 아니까. 제일로 재 미있는 것은 (삼년 전에 했던) 연극이도만. 연극선생이 와가지고 근게 ‘장화 홍련’인가 그것도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합쳐서 하고, 또 대회도 나 가고 했지. 탈 쓰고 한 것도 있고. 작년에는 장구대회 나가서 최우수상도 탔 어!. 요즘은 ‘민요장구’, ‘한춤’ 일주일에 하루 나오지.”

그리고 문화의집 행사를 통해 사회봉사 및 참여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겼 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한다.

“우리 여기서 (서울 밑에 있는) 광주 저기 옆에 정신대 요양소가 있도만. 거 기도 갔었어 두 번인가. 가서 그 양반들 다 봤어. 공연도 해주고 그랬지. (입원하셨던 분들은) 웃음도 눈물도 없어. 그녕 멍..하니 이려고 있어 멍하



니.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그때 우리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미국 삼들도 와서 보다가 우리가 아리랑을 하니까. 진도아리랑을 하니까 막 좋아서 우리랑 같이 춤추고... .”

마지막으로 문화의집이 번창하고 꾸준히 활동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물론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지만, 할머니는 경로당보다 자유롭게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의집이 좋다고 하신다.

“집에만 있으면 죽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여기 한 번씩 왔다가 가면 기분이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

취재 : 전북대학교 한스타일 연구센터 김미숙

2)여성연극동아리 <수다> 이경란

“소나무 아래 잠들다” 연극 무대를 마치고 (이경란)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7, 2014)

“연극”이라는 단어는 오랜 세월 내 가슴 속 깊이 품어온 설렘이다. 10살 때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를 부르 고픈 마음을 표현할 길 없던 난 연기자가 되면 목청껏 엄마를 불러볼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 그 때부터 마음속에 기회를 엿 보며 품어왔던 꿈이 되었다.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 다른 생을 살아보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지만 적어도 내 삶에 있어 연기는 다소 거리가 먼 고급스런 문화였다. 그럼에도 20대의 어느 날 모극단에서 단원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오디션에 합격해 직장과 병행해 한 달 남짓을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으나 늦은 귀가에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그만두야 했다. 어느새 난 마흔 중반을 넘기고 있다. 삼천동에 집이 있었고 모래네 시장근처에 세를 얻어 화장지 대리점을 몇 년 하다 보니 출퇴근도 힘들고 무엇보다 어린 딸들만 늘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애를 태운 탓인지 건강도 나빠졌다. 가게와 집을 함께 할 방법을 찾아 재작년 12월 27일 눈 오는 아침 우아시장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해 2층은 집으로, 1층은 대리점을 열었다. 동네가 너무 조용했다. 가게로서는 좋은 자리는 아닌 듯 하지만 아이들 학교가 바로 뒤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로 했다. 일처리로 인해 동사무소를 들락거리다 문화의집 광고지를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깜짝 놀랐고 주민센터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연극 수다 모집에 놀라기도 기쁘기도 했다. “설마 연기까지야 하겠나!” 그래도 어찌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극이란 말에 주저 없이 문을 두드렸다. 문화의집에 가니 3월부터라며 신청을 친절하게 받아주셨다. 수는 몇 안 되었으나 현직 전문배우인 선생님이 연기를 가르쳐주셨다. 여러 대본 중 ‘소

나무 아래 잠들다’를 받아 들고 얼마나 설 · 던지……. 품어왔던 꿈과 대면했다. 몇 달 간 연애하는 기분으로 수업시간만 기다렸다. 가게 문 닫는 것 쯤 대수롭잖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다녔다. 연습시간마다 꿈을 만나는 기쁨이 소중한 다. 때론 다 모이지 못해 연습을 못하게 되면 너무도 아쉬웠다. 나에게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일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던가. 내 생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겨졌고 이사도 이 때문에 오게 하신 것은 아닐까 까지도 생각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간만에 가슴이 뛰는 삶을 사는 것 같았다. 워낙 기억력이 좋지 않아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걱정되고, 무대에 설 수 있을 까, 해낼 수 있을 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반복연습과 선생님의 지도 속에 조금씩 나아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 공연날짜가 잡혔다. 그날 나의 작은 달력엔 결혼기념일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쓰였다.

연습은 계속되었고 소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적잖은 어려움, 이상한 소외감과 궁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문화의집 관장님과 지도 선생님, 아트홀의 명태 단원 분들의 많은 수고로 무대가 꾸며져 갔다.



어디서 얼마큼 홍보가 되어 우리 공연을 보러와 줄까하는 기대감과 나와 같은 꿈을 품었던 분들이 우릴 보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넘실댔다. 그러나 팜플렛이 없어서일까, 지역홍보가 부족해서 일까 관객은 각자의 가족과 지인 몇 분이 다였다. 수가 적든 많은 더위와 추위를 이겨낸 우리의 ‘소나무 아래 잠들다’ 공연의 막이 올랐고 드디어 나의 꿈이 무대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관객들의 훌쩍임과 웃음 속에 공연은 무사히 끝이 났

다. 그 흔한 동영상하나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난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에게 감동의 소감을 들었다. 이런 좋은 공연은 정말 간만에 보았고 연극이란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느꼈다며 당장 프로로 나서도 되겠다는 찬사를 들었던 것이다. 무료 공연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누려서 하는 사람들에게겐 격려와 보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어디서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꿈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로써 내 생애 평생에 남을 한 날이 만들어졌다.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신 관장님, 양상아 선생님, 그리고 함께한 수다팀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누구에게나 건강과 기쁨, 희망과 꿈을 주는 우아문화의집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문화센터가 되길 빈다.



3) 여성연극동아리 <수다> 이방환

문화로 나를 만나다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7, 2014)

타이틀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끌었다. 양성평등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우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여성연극프로그램이었다.

내가 연극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던가? 아마 10여 년 전, 소극장 판에서 공연했던『행복한 가족』이란 연극을 처음 대한 순간이 아니었나한다. 행복한 가족은 어찌 살까? 호기심 가득안고 공연장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대학생활, 문예창작학과에서 희곡을 공부하면서 연극을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생겼다.



전화로 참여 신청을 했다. 희곡을 마음껏 읽어 볼 수 읽겠구나하여 신청을 했는데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이다. 덕분에 오디션 없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문화의집 관장이 연극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서 가능하였다.

문화의집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친구 같고, 동생 같고, 딸 같아서 이내 가까워졌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을 ‘수다’로 정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

임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공연에 대한 팁을 하나하나 쌓아갔다. 무대에서
는 동선을 어떻게 해야 하며, 대사를 전달하는데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또한 감정이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연을 앞두고 무대에 올릴 작품을 고르는 데도 고민을 해야 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고르기란 만만치 않았다. 결국에는 자살자들의 이야
기라고 꺼렸던, 하지만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이야기 장진의『아름
다운 사인』을 무대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자에게 배역이 정해졌다. 나는 경상도 여인의 역할을 맡았다. 남편의 외
도로 상처받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포기한 이 여인을, 내가 과
연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대사를 외우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집안에서는 대사를 외울 수가 없었다. 행여 위아래 층에서
듣는다면 사뭇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메모지에 내가 맡은 역할의
대사를 빼곡히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틈만 나면 외웠다. 사람의 왕래
가 잦은 곳에서는 입 밖에 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뒷산
에 올라 산책을 하며 큰소리로 외우곤 했다.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 좋은 말
이 나가야 할 텐데 왜 입에 담기 싫은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야 하지? 하고



주춤하기도 했다. 아마 프로가 아니라서 그럴 게다.

공연이 임박해서는 만남을 자주 했다. 모두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수다’ 멤버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오디션을 거쳐 뽑아도 이렇듯 좋은 배우를 만나기 힘들 거라고, 역할에 걸맞게 나이며 어투며 생김새가 엇비슷하게 모였기 때문이다. 열정 또한 서로에게 뒤질세라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제 이름이 아닌 대본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공연을 마칠 때까지 가정에 별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서로 아프지도 말자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육 개월 동안 틈틈이 연습했던 공연을 아하아트홀 무대에 올리던 날, 대기실에서 공연 시간을 기다리며 관객은 얼마나 들었는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가슴이 쿵닥 쿵닥거렸다. 공연도중 관객들의 까르르 터지는 웃음을 들으며, 아! 관객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늘 객석에 앉아 배우들을 지켜보던 입장에서, 직접 배우가 되어 남의 삶을 살아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연습 중 반복하여 대본을 읽어보면서, 희곡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깨닫기도 하였다. 무사히 공연을 마친 후, 우리의 연기에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극 중의 사내를 보며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내 아내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정말 경상도 여자 맞느냐?”, “전문 배우 못지않다.”, “이러다 진짜 배우로 캐스팅 되는 거 아니냐?”는 등 공연 뒷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역시 무대체질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4) 우아문화의집 연극반 작가선생님

깜짝인터뷰 : 권미순 선생님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9, 2016)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아문화의 집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극동아리
'수다'와 '실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십여 년 전에 '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시
한부 여성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때 드라마를 보고 나
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
의 버킷리스트는 걸어서 국토종주하기,
연극하기, 책 쓰기, 대학진학하기, 스피치 강사가 되어 강의하기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사느라고 잊고 살다가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자, 저는
일을 그만 두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맨 먼저 부산
낙동강 하구 독에서 사대 강을 따라 인천서해 아라 감문까지 15일간 국토종
주를 했는데, 걸어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매일 글로 남긴 것을 모아서
국토종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고 나니 글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
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전북 콘텐츠 사업부에서 스토리텔링 교육이 있었
고, 그 열흘간의 교육을 통해 글쓰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작가를 꿈꾸
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가 취미였고, 일기를 쓰는 습관이 꿈을 꾸게 되는 데
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극동아리에 들어오면서 창작극도 쓰게 되었구요.



글을 쓰실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꿈과 희망을 주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글을 쓸 때는 글의 뼈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만, 쓰다보면 이야기가 글을 이끌어가게 되더군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작품을 쓰시고 싶으신가요?

남은여생을 글 쓰는 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통신대 국어국문과에 진학을 했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글쓰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는 게 꿈이고요. 내가 쓴 책이 청소년들의 권장도서로 지정되고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작품은 따뜻하고 꿈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이 있는 한 청춘이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 독립시킨 후 신 살이 넘어서 작가지망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설레는 도전을 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기를 권유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히말라야에 오르고 싶은 것이든지, 난타를 배워 공연을 하는 것이든지 무슨 꿈이든지 가슴 설레는 일을 하면서 모두모두 젊게 살면 좋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져도 좋고, 아니라 해도 그 꿈을 향해 열정을 쏟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저는 꿈이 있고 도전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 멋진인터뷰 :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멋진인터뷰 : 황경주 선생님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1, 2018)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열정적인 모습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교육하시면서

느낌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다고 보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한지

는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 우아문화의집 ‘전

주희망학교’에서 만해도 2010. 3월부터 지금

까지 했으니까 8년째이고요, 그 전에 전북중

합사회복지관 노인한글교실에서도 2005년부터

5년 간했으니까 모두 13년째네요.



느낌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보람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사신 어떤 할머니 교육생 분은 “선생님, 제가라우 서방

이 이렇게 글 배우는 것 같이 좋았다면 진즉 시집 갔어라우.” 하기도 하시

고, 또 어떤 교육생 분은 “선생님, 어째서 공부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 간

데요. 저는 공부하는 날이 꼬박 꼬박 기다려집니다.” “텔레비전 자막도 읽

을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일도 볼 수 있어요 ……”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아주 기뻐요. 나의 가치감과 유용성을 느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교육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음,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분들

을 볼 때 저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글을 잘 못 읽으셨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그 심정을 생각하며 강의합니다. 문해를 할 수 없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셨겠습니까? 자존감은 행복의 밑바탕인데, 행복하시겠어요? 글자면 보면, 더군다나 쓰라고 하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성인문해교육을 통하여 교육생 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교육생들과 제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이 성인문해교육 교육관입니다.

교육생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학구열과 출석률이 무척 높는데 비결은?

그건, 그러니까 강사인 저의 나이가 교육생 분들과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동년배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거의 70대이신데 젊은 강사가 강의 하면 그 자체가 자존감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서로 비슷해서 조금은 임의롭다는 것이 비결이고요.

강의 용어를 교육생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말을 사용하고, 설명을 연세가 높은 교육생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문적 문법용어도 쉬운 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의 내용을 그저 여러 번 읽고 쓰는 식의 공부보다는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알도록’하는 방법 곧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 있다면 연세가 높아 ‘이 나이에’ 하지 않고 ‘이 나이에’도 하며 공부 하는 교육생 분들의 용기를 진정으로 존경하며, 실수를 꾸짖지 않고, 격려하여 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인문해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라도 교육생이 되어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성인문해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생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나이에'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하며 당차게 시작하십시오. 또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러면 반드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안경을 맞춰 썼을 때, 밝은 세상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놀라운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글을 몰라 주눅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존감이 높아져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우한 환경으로 문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복지에 못 지 않는 지적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분들은 노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시고 존경하시어 교육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6) 깜짝인터뷰

이창순 회원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2, 2019)

안녕하세요? 이창순 회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지만 근무지가 우아동에 있어 우아문화의 집을 자주 이용하는 이창순 입니다.

우아문화의집을 어떻게 알고 찾으시는지?

언제나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선풍 용기를 내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소개된 우아문화의집 프로그램 중 보태니컬 아트가 있어 우아문화의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태니컬 아트를 참 즐겁게 배우고 많은 힐링도 받았습니다.



방문하시면서 문화의집이 어떤 곳인 것 같나요?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문화의집인 것 같아요. ‘문화’하면 예술인, 작가 등 거창하고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처럼 느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되는데 문화의집이 그런 거리감을 좁혀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꿈을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통해 입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꿈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아문화의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 문화의집의 이래서 좋다? 한 말씀해주세요.

밝고 멋진 웃음으로 인사해주는 도서관장님과 햇살 가득 들어오는 예쁜 책상, 즉 편안한 사람과 공간 이에요. 전 자투리 시간에도 이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일을 계획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읽고 가거든요. 제게 우아문화의집은 마음의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문화의집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위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빼고는.

앞으로 문화의집이 어떤 역할로 주민들에 다가가야 할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소시민들이 품고 있는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7) 지역문화인력 정의창 선생님을 만나다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12, 2019)

안녕하세요? 우아문화의집과 함께 한 1년 어떠셨나요?

봄이 시작되는 4월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닿았네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게 처음 느꼈던 낯설음과 설렘이 지금은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바뀐 시간과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 책장 가득 꽂혀 있는 책들을 봤을 때는 황홀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이 책을 읽을 여유가 없는 건 아쉽더라고요.

우아문화의집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나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필요한 작지만 중요한 주춧돌 같은 기본이 되는 사업들을 몇가지(씩이나) 수행했다고 (감히)자부합니다^^ 전주의 5개 문화의집이 합심하여 지역공예명인들을 소개하고 전통수공예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전주 수작’을 준비하며 주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로서의 수공예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인력 개인프로젝트로 평소 관심 있던 공유주방을 매개로 지역청년들을 한데 모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청년들끼리 요리를 배우고 함께 나누며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지역민들의 공감과 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구요^^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라는 지역기반 중고거래어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첫마중길에서 역전마켓이라는 중고돗자리장터를 열었습니다. 외부의 사업비나 지원금 없이 무자본으로 행사의 성패는 오로지 날씨와 참가자들의 적극성과 호응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번의 토요일에 걸친 행사마다 좋은 날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또 다른 생활문화로서 중고거래장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였나요?

전주 수작 행사를 한달간 준비하면서 번아웃이 왔었는데 마침 같은 시기 진행하던 청년공유주방활동에서 만들어 본 음식이 밀푼유나베였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낯선 음식이었는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 준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밀푼유나베는 제게는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아문화의집 또는 지역에서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아직도 생활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범위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활문화의 범주는 크고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올해 경험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주민 안에서의 생활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발성을 더해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나 기획 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8) 우아동 이야기 : 임연주 선생님의 이야기 찾기 ‘우아동 전설’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3, 2011)

우리 동네의 어르신이 전해주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들어보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한 전설도 알아보아요. 이 이야기는 관암마을의 손관석, 조점동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전설이에요.

유항수 전설

옛날 어느 노인이 유항수에 있던 주막에 와서 물 한 그릇을 청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술 한 잔을 권했더니 맛있게 마시고 나서 “오늘 선박장에 별 사람 다 보았네. 글썸, 쌀이랑 건어 등을 단 돈 몇 푼 안 되는 헐값으로 호가하는 게 아닌가!” 하며 무릉 동쪽에 있는 벼락바위 쪽을 가리키며 “저곳에 내(川)rk 생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경신년인 1920년 물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선박장은 물에 잠겨 헐값도 못되는 값으로 물건이 흥정되었어요. 노인이 했던 말대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저수지가 생기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이 노인이 신선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유항수 자리가 아중저수지라는 말도 있어요.

윗유항수와 아랫유항수

저수지 자리를 유항수라고 해요. 윗유항수는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고 용소(龍沼)라고도 부른답니다. 아랫유항수는 저수지를 돌아가다보면 수문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유항수에서 소리를 치면 나라에서 상주 주인을 데려가서 벼슬을 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중저수지는 ‘고래의 꿈’이란 이름을 다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경치를 제공하려 한답니다. 아중저수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인 것 같아요.

풍수가가 끊어버린 혈맥

이 이야기는 우아동 1가 관암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죽어서 나라가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묘를 쓰려고 하는데 풍수가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풍수가들에게 명당자리를 다 한자리씩 잡아오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풍수가가 풍수를 잘 봤나보아요. 한양(서울)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천리길을 걸어 내려왔는데 그곳이 금상동 효안대군 묘였어요. 그 풍수가는 “묘자리가 대대 군왕지지(君王之地, 군왕이 태어날 지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임금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고 잡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 풍수가는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 맥을 떠서 왔어요. 그리고 난 후 풍수가가 올라가니 임금님이 “어떻게 하고 올라왔는가?”라고 물었어요. 그 풍수가는 “대대로 벼슬을 못하고 농사지를 정도로 했습니다.”하니까 임금님이 “네 이 놈, 너무했다!”고 나무랐습니다. 풍수가가 만약에 나무뿌리에 풀이 나고 그러면 맥이 이어진지 알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풍수가가 맥을 뜯은 자리에 풀이 나니 명당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근대미재와 원수내미재

마근대미재는 옛날에 남원, 임실 소장수들이 넘어 다니고 과거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고개예요. 막은대미재라고도 해요.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왜적들이 침범해 들어오는데 한벽루 옆 약수터 좁은목가지 왜적들이 쳐들어올 판이었어요. 그런데 마근대미재에다 허수아비를 사람모양으로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숨어 지켜봐서 왜적이 오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모닥불도 피워놔서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지요.

원수내미재는 왜막실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원래는 원수너머라고 했는데 사투리로 원수내미로 바뀌어서 지금 원수내미로 불리고 있어요.

왜적이 봤을 때 마근대미재에는 불빛도 보이고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보고 착각하여 마근대재미로 가다가 큰일이 날 것 같으니 원수내미재로 가기로 결정했어

요. 그래서 원수내미재에 왜적들이 몰렸는데 조선 군인들은 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원수내미재에 기다리면서 왜적들이 오자 왜적들을 몰살시켰답니다. 전쟁에 대비하여 적을 유인하고 무찌른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지요.

왜막실

임진왜란 때 왜적들은 자리를 잡고 살았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남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으로 귀화해서 계속 살게 되었지요. 왜놈들이 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왜막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왜놈들이 망했다고 해서 ‘왜망실’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완산부성 밖 동쪽 귀퉁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마음먹은 이들을 조선 사람들도 받아들였어요. 외부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같이 조화롭게 살았던 선조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죠?

관암마을 유래

우아동 관암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는 갯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마을의 이름을 지을 때 한자의 갯 관(冠)자와 바위 암(巖)자를 따와서 관암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흔들며 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이— 형태가 되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위의 형상이 갯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갯바위라고 불린답니다.

신동에서 신을 신고, 관암에서 갯을 쓰고

재전리 용애리를 신동, 관암마을을 갯바우 그리고 관암마을 아래 동네를 문수골이라고 해요. 신동마을에서 신을 신고 관암마을에서 갯을 쓰고 문수골(무릉)에 가서 문을 연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은행나무로 만든 은행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아중역 뒤에 있는 행치리라는 동네가 나왔대요. 행

치리(행치부락)_이라고도 해요. 관암마을이 어른들은 ‘신동’서 신을 신고, ‘갯바우’가서 갯을 메고, ‘문수굴’가서 문을 열고, ‘은행다리’ 건너서 ‘행치로’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명의 유래를 이용한 재치있는 말놀이를 선조들의 기발한 발상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죠?

낙시혈과 잉어혈

옛날에 은행다리 옆에 혈이 있었는데 아중리를 개발하면서 다 묻혀버렸대요. 영생교회 바로 밑의 뒤에 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을 낙시혈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 곳에 묘가 많이 있었답니다. 아중역 앞의 능선을 잉어혈이라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중국사람이 묘로 썼어요. 개발하기 전에는 큰 묘가 세 구나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사람이 그 자리의 묘에 묻혔는데 그 뒤에 중국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은행다리 놓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 전에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십리 이내에 묘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도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은행다리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하여 은행다리에 인교(仁敎)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곳에는 묘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중리가 개발되면서 명당으로 불리던 낙시혈과 잉어혈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장석바위와 성혈

관암마을의 논 가운데 자리한 고인돌이 있는데 이 바위를 ‘장석바위’라 불러요. 이 바위에는 구멍이 여러 고성 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며 장군이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구멍이 생겼다고 말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바라며 바위에 새끼줄을 꼬아서 고추, 숯, 솔잎을 꽂아 바위에 들렀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 낳기 위해 이 바위에서 공을 들였다고 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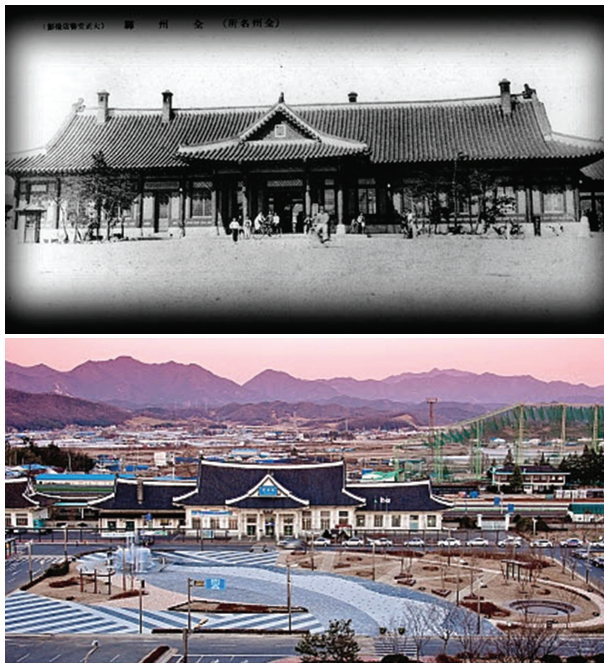
9) 우아동 이야기

(우아한 동네이야기 vol9, 2016)

우아동(牛牙洞)은 원래 완주군 초포면의 우방리와 용진면의 아중리, 석소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957년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우방리의 ‘우’자와 아중리의 ‘아’자를 따서 우아동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아중리를 우아동1가, 석소리를 우아동2가, 우방리를 우아동3가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다가 1973년 우아동으로 통합하였다. 우아동은 아중지구와 우아지구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직 자연부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아중리는 아중역 앞을 가리키는데 대개 석소리에 해당하는 우아동2가에 해당한다. 아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망실이 나오는데 이곳 역시 우아동에 속한다. 왜망실에서 아중역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범어리골 또는 호성골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과수원이었는데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다 최근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아중역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전주의 또 다른 관문 전주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우아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역 건너편에는 우아문화의집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과 문화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아문화의집 인근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아주공아파트다. 역세권과 맞물려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아동은 자연과 어울려 도시적이면서도 자연부락이 함께 있어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아동의 대표적인 공간을 하나씩 만나보자.

전주역(全州驛)

전주의 또 다른 관문인 전주역(全州驛)은 덕진구 우아동3가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전라선의 철도역이었으나 지난 2009년 한국철도공사 조직개편에 의해 코레일 전북본부 전주역으로 변경되었다. 1981년 현재 우아동의 위치로 이전한 전주역은 전주의 상징인 한옥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1914년 서노송동 지금의 전주시청 자리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전에는 태평동 SK뷰 아파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모든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한다. 전주의 교통 요충지이며, 2011년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개통되어, KTX가 정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KTX 고속열차 운행횟수와 좌석수에 있어 경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라북도 지역은 KTX 고속열차 이용의 선택폭이 보다 넓어져 전주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편리하



위 : 옛 전주역(전주시청 자리), 아래 : 현재 전주역(우아동)

게 기차를 이용 하고 있다.

그간 전주역은 한옥건물과 넓은 광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색 시멘트로 조성되고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어 효율성은 물론 전주시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광장부지 5180㎡에 걸쳐 '꿈의 정원'을 컨셉으로 친수공간과 보도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광장이 재구성 되었다. 테마는 '천년역사의 전통과 멋의 도시인 전주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면서 아늑하고 편안한 정원의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꿈의 광장'으로 명명됐다. 분수대는 '추억의 연못'으로 나지막이 펼쳐진 연못으로 나지막이 펼쳐진 연못 위 연잎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꾸며졌다. 또 광장 바닥과 시설물, 녹지 공간은 사계절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가로등도 전통 한옥의 용마루와 추녀마루의 곡선을 살린 디자인을 접목했다. 녹지공간은 전통 수목인 느티나무를 위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나무와 잔디를 심었고 부채꼴을 형상화한 산책로와 퍼즐러 등 휴식처로 조성되었다. 소공 연이나 단체관광객의 안내 등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계단형 야외무대도 설치됐다.

전주역 맞은편으로는 전주의 사통팔달이라 할 수 있는 백제로가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역사 뒤편은 농촌의 풍경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장재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와 우아동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역세권 개발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등 전주역을 활용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장재마을

안덕원에서 전주역 방향 동부우회도로의 동쪽 마을이 반암리이다. 반암리(盤岩里)는 마을 가운데에 널찍한 반석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반암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재리는 도당산에서 전주역 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의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장재리는 장자리(長子里)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장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예전에는 이 마을에서 종이우산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전주역이 들어서기 전에는 100여 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고 옷끝이 시암과 아래끝이 시암 등 두 개의 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옷끝이 시암은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왔고 아래끝이 시암은 그냥 땅을 파서 물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전주역이 들어서면서 시암이 사라졌으며 아래끝이 시암물이 말라버렸다. 이 지역은 대부분 밭이나 과수원이었고 아래끝이에 있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 장재마을의 당산이었고 여기에서 당산제를 지냈었다.

장재마을에서 소양천과 아중천에 이르는 지역은 거의 논인데 장재를 중심으로 북쪽은 쇠마니뜰이고 남쪽으로는 철논뜰이다. 쇠마니뜰은 당산에서부터 현재 예원예술대학교대학원 근처에 있었던 해골방죽까지의 들이다. 왜 정때 이 들에서 금을 채취한 뒤로 쇠마니뜰이라고 했다. 당산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뜰이 철논뜰인데 철길이 나기 이전부터 부르던 지명이었다. 장재마을 주민들은 도당산에서 나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겨울이며 소양의 범수매나 왜망실에 가서 땔감을 구해왔다.

아중저수지

아중 저수지는 우아동과 인후동 경계에 위치한 만큼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가득 받아오고 있다. 1952년 1월 1일 착공돼 1961년 10월 30일 완공되었으며 유역면적 1015ha, 만수면적 26.05ha, 홍수면적 29.75ha, 관개면적 188.4ha, 수혜면적 284.8ha로 농업용수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 농경지 일원에 아중택지 개발로 인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능을 잃었다.

신도시로 지정돼 지금처럼 개발되기 이전인 80년대까지는 전주권 초·중학생의 소풍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봄에는 제방에 핀 벚꽃을 바라보는 행락객이 줄을 잇고 있다.

제당의 연장은 205m, 높이는 15.03m, 구조는 존형필댐, 최대방류량은 1.31m³/sec이다. 물넘이 형식은 측수로형, 언체 높이는 2.0m, 일류수심은 1m이다. 취수형식은 취수탑형이며 지름 2m, 높이 18.5m, 취수능력은 0.65m³/sec이다. 방수로의 연장은 75.5m, 바닥평균폭은 10m이다. 2010년 보강공사를 통해 총저수량이 138만8000m³, 유효저수량은 137만6000m³로



아중저수지

늘었다.

천년전주 혈액잇기 '노송천 프로젝트'로 추진된 노송천에 흐르는 물의 유량은 경관, 친수활동, 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1일 6500m³로 정해졌고 수원으로 아중저수지의 제방을 높여 40만톤의 용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당시 소양천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 지하수 활용 방안, 지하수를 이용해 노송천 하구에서 재활용(순환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비용·용수량 한계·환경적인 이유로 아중저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중저수지는 시민에게 더욱 많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수변테마파크 개발 계획이 수립단계다. 전주시 동부지역에 물·자연·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친수공간,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수변테마파크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0년까지 300m의 합성목재 산책로가 조성됐다. 이 산책로는 아중저수지의 풍광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은 우아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5만6590㎡ 부지에 지난 1995년 약 2년 6개월 동안 각종 생활폐기물을 1차 매립한 뒤 1997년 서신지구택지개발지구 폐기물을 추가로 매립, 이후 1999년 최종 복토해 관리를 해왔다. 전주시는 7억원의 예산과 하루 200여명의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 생태체험 학습장 4만5040㎡와 닳나무 군락지 5760㎡, 목재 부산물 처리장 3600㎡, 조경수 및 화초류 생산시설 2190㎡를 조성했다. 지역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됐던 쓰레기 매립장이 자연생태체험 학습원으로 탈바꿈돼 자연환경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은 야생화 관찰원과 테마식물 군락지, 닳나무 군락지, 환경체험테마공간, 꽃묘 생산 및 체험포지, 숲속피크닉장 등 다양한 시설물이 테마별로 조성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야생화 관찰원에는 우리 고유 자생식물인 별개미취, 기린초 등 28종에 4만

1) 2010년 현재, 우아2동 주민센터 인구통계자료

8000여본이 식재돼 도심 속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테마식물 군락지는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코스모스, 가을에는 메밀 등을 식재, 계절별로 화려한 결과를 연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닥나무 군락지는 체험 학습원 주변 법면 등에 7,700주가 식재돼 있으며 조경수 및 초화류 생산 포지에는 영산홍 등 4종에 3만본의 조경수가 장관을 이룬다.

환경체험테마공간에는 폐자재를 재활용한 놀이시설과 방문객이 만든 각종 재활용 소품들이 식물들과 함께 진열돼 있으며 꽃묘를 재배하는 생산포지 및 체험장에서는 폐목을 활용한 목재용품 만들기, 곤충 관찰, 꽃묘심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학습도 가능하다. 또 피크닉장은 느티나무 등 큰 나무를 식재해 생태숲으로 조성, 등의자, 탁자, 원두막 등 편의·휴게시설을 갖춰 체험 학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왜망실

왜망실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아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류 방향 동쪽의 골짜기에 소재하는 마을이다. 왜망실에는 재전(在田), 용계(龍溪), 아하(牙下), 아중(牙中) 등 4개의 부락이 있으며 가구는 96세대, 인구는 277명이 거주¹⁾하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나누어 보면 원주민 70세대 196명, 이주민 26세대 8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대부분 7,80대 고령의 노인들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으며 이주민들은 5,60대의 부부가 대부분이다. 원주민들은 경제활동으로 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철쭉, 화살나무와 같은 관리가 편한 화훼재배를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득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이 끝난 이들이 많으며 시내로 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건설업, 도장업(塗裝業), 요식업, 중장비업, 미용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야와 전답을 소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이주민들은 저렴할 때 매입한 임야를 소유하여 새로 이주해 들어오려는 도시민들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망실은 100가구가 안 되는 작은 마을로서 1957년 전주시 우아동 1가로



좌: 원주민의 주거 형태, 우: 이주민의 주거 형태

편입되기 전까지는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였다. 구한말부터 행정구역 구분이 시작되어 1914년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재전리, 용계리, 아하리로 구분되었던 것이 1935년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로 통폐합되었다. 1989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구청이 신설되어 덕진구 우아동 1가로 편입되었다. 왜망실은 아중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원수네미에서 재전마을에 이르는 지역으로 과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내 사람들이 들어와 집 짓고 살 정도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공기도 좋아서 전원생활의 최적지가 되었다.

왜망실은 본래 골짜기 안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재전, 용계, 아하, 아중이라는 순서로 네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다. 왜망실은 정유재란 때 왜구들이 마근대미재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그 옆 골짜기를 넘어 오다가 매복한 우리 병사에 의해 모두 죽었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왜막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진묵대사의 유적고(遺蹟攷)에 나와 있듯이 정유재란 때 패잔한 왜구들이 이 마을의 깊은 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하여 왜막촌(倭幕村), 왜막곡(倭幕谷)이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왜막실이라는 지명을 꺼려해 지명을 변경

2) 진묵대사(震默大師: 1563~1633, 조선 인조 때)의 이름은 일옥(一玉)이요 진묵은 그의 법호(法號)이다. 진묵대사에게는 홀로된 모친과 손아래 누이가 있었는데 극진한 효성으로 모친을 봉양했다. 만경에서 살고 있는 늙은 모친과 손아래 누이를 전주 왜막촌(倭幕村)에 옮겨 놓고 마을 뒤에 있는 일출암에서 왕래하며 모친을 봉양했다. 왜막촌은 산으로 둘러싼 마을이어서 모친이 모기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모기를 퇴치했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진묵대사 유적고(震默祖師 遺蹟攷)》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노모는 왜막촌에서 봉양할 적에 대사는 마을 뒤 일출암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날마다 모친이 모기에 물려 고통하고 있었다. 대사는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모기를 퇴치하였으니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오래도록 모기에 물리는 고통이 없어졌다」

하려고 전주시에 건의하였고 전주시는 전주시지명위원회 회의를 통해 왜망실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왜망실에는 가마터가 있었는데 마을 동쪽의 산기슭 계단층에서 점토를 채취하여 이 가마터에서 구워 만든 기와가 풍남문에 사용되었다. 당시 가마터가 있던 자리에는 점토질의 흙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굉장히 단단한 점토였다. 그래서 기왓골이라고도 했고 장막이 겹겹이 앞을 막은 것 같은 첩첩산중이어서 가막(加幕)골이라 불리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35년간 통장을 역임한 송태형은 김해 김씨 족보에서 '넓은 들판에 새들이 날기 좋다'라는 뜻의 봉광리(鳳廣里)라는 지명을 발견한 적이 있어 전주시에 지명 개명을 요청하였으나 허사였다.

왜망실에는 조그마한 일출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진묵대사²⁾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일출암에서 일출을 보면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좋아 진묵대사는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제비형국으로서 명당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에는 또 하나의 시골풍경이 있다. 1950년대에 마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담을 쌓았다. 시간이 지나 돌담이 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돌담을 발견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돌담길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상[극락암 목조좌래여상]

우아동문화재

전북문화재자료 제151호 조선시대의 불상[극락암 목조좌래여상]

완주군 송광사(松廣寺) 지장보살좌상(地藏菩薩坐像) 및 정수사(淨水寺) 삼존불좌상(三尊佛坐像) 등 인근 지역의 17세기 불상들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목조불상이다.

우아동에 있는 목조여래좌상으로, 몸 속에 복장기(腹藏記)를 넣고 있었으나 도난당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있는 불상은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자세와 단정한 신체, 자세의 안정된 구조 등이 조선 후기(17세기경)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거문고산조[무형문화재]

산조란 장구를 반주로 하여 다른 악기를 독주의 형태로 연주하는 것이다. 거문고산조는 산조를 거문고로 연주하는 것으로 19세기 말 전라도를 비롯하여 충청도·경기도 남부의 민속음악인들이 주로 연주하였다. 악장은 느린가락에서 빠른 가락까지, 진양조에서 중모리·엇모리·중중모리·반굿거리·단모리로 이어지는 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로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어 있는 우아동에 사는 강동일은 거문고산조의 모든 가락을 모아 새로 모든바탕을 구성하여 자신이 고안한 악보로 정리한 인물이다. 그의 특기는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점점 몰아가며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를 섞고, 느긋한 리듬과 급한 리듬을 교유시켜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능란한 기교를 부리는 것이다.



아름다운이전

IV

사람들

우아문화의집 강사_ 황경주

나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주는 우아문화의집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랐프 월도 에머슨



우아문화의집 성인문해교육 강의 (2010 ~ 현재)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황경주입니다. 경! 주! 경상'경'
자 두루'주'자 두루두루 경사스러운 일들만
있으라고……. 이름처럼 내 삶을 만들어가
려고 노력합니다.

우아문화의집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우아문화의집 만남은 2010년 3월부터입니
다. 약 10년쯤 되었죠.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인문해수업 강
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추천

을 받아 우아문화의집에서 성인문해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교직생활을 할 때부터 한글을 알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다. 글자를 쓰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장실에서 별도로 한글을 가르쳤죠. 아직도 기억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 어떤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그 학생은 안돼요. 부모님들조차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라며 가르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조금 늦는 거다’ 생각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큰 학생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 했더니 ‘저는 선생님 아니었으면 글씨도 몰랐을 거예요’라며 자신은 아무개며 지금 고등학교에서 제방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했어!’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한 아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성인문해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글씨를 보면 더군다나 쓰라고 하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 그러한 상황들에 자존감이 상하셨겠죠. 자존감은 행복의 밑바탕인데, 저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며 강의를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성인문해교육은 퇴직하고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일감이 되었습니다.

우아문화의집에서 만난 첫 학생들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만난 학생들 중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는데 딱 한분 남자분이 계셨죠.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묵수였는데 일을 하다보면 문서를 봐야하는 일이 잦았는데 읽지 못하니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은 성인문해교육을 받은 후 학력취득을 위해 학교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학생 중에 홀로되신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서방이 이렇게 좋았으면 진작 재혼 했을 거예요’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중에 87살 잡수신 분이 계십니다. 최고령 학생이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배움에는 이렇게 나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보고 늙지 말라고, 죽지마라고 말하십니다.

오래도록 함께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중에는 수업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신경을 쓰면 그분들은 미안한 마음에 신경 쓰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도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제 시간에 오기 힘든 학생에게 ‘올 수 있는 시간에 와라. 3시에 오면 5시까지 해 주겠다’ 말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매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 년 내내 방학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은 내 행복이고 즐거움이며 내가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고 건강도 염려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문해수업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건 나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어떤 어르신 학생이 운전을 아들에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다그치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가르칠 때는 어르신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그 분들이 공부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놀래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초등학교 학생도 알아듣게끔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로 아는 사람만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어르신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그들이 쓰는 말로 설명해주고 알아듣기 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 가보면 가끔 설문지를 만들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글씨를 모르는 어른들은 어떻게겠습니까. 무섭고 창피하고 모른단 말도 못하겠고 그런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날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아문화의집 10년 동안 함께한

학생은 몇 분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14명이 함께하고 있고 중간에 그만 두었거나 졸업한 학생들을 포함하면 대략 30여분이 안될 겁니다. 마음으로는 배우고 싶은데 실천으로 옮기는 즉 이 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적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분들인 겁니다. 대부분이 어르신 학생들은 여성입니다. 그 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제외된 설움을 당하셨죠. 그러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10년 동안 함께 한

우아문화의집 어떠세요?

문화 그 자체죠. 주민센터 건물 내에 문화
의집이 있지만 이 동네가 문화적 의의를 바
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지적욕구가 충족된다고 생각합니
다. 작은 도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봅니다. 누가 이것을 착안했는지는 몰라
도 착안을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 학생들 자랑해주세요.

우리학생들이 글짓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나는 좋아요

- 장옥순

나는 좋아요.

간판 글씨를 읽을 수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문자를 읽을 수도 있고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은행을 가서도

관공서를 가서도

차를 탈 때도 당당해서 좋아요

아들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남편도 자녀들도 좋아해서 좋아요

내 평생의 한을 풀어 주신

선생님이 좋아요.

나는 좋아요.

우리학생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 안나순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도 학생이어서,

저도 갈 학교가 있어서, 저도 배울 수가 있어서

저도 부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저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러져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은행에 가서도 시내버스를 타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친구에게도, 자여들에게도, 친척에게도, 남편에게도

저는 선생님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글자 공부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도 깨우쳐주셔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 상대방에게 맞추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선생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이 무한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학생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아문화의집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보탬 말도 없는데... . 음,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피부에 닿을만한 그런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찾아보고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합니다.

우아문화의집은

선생님 삶 안에서 어떤 순간인가요?

60세까지 후회스러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 감사를 느꼈고 정년퇴임 후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가르친다는 건 틀림없는데 누구를, 무엇을' 고민했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며 '우리 어르

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우아문화의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년기가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지금이 왕성했던 젊은 시절과 똑같은 그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아문화의집에서 나의 진정한 성공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아문화의집 지역문화전문인력_ 정의창

삶 속에 스며든 축제를 배우다

“작년 우아문화의집에서 시민들과 지역의 주민들, 청년들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획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기획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이란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정형화되고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화의집을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아문화의집 지역문화전문인력 (2019) 근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의창이라 하고요. 77년생이니깐 나이는 많은 거 같아요. 원래 전공은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처음 했던 일이 화학연구였어요. 전공은 식품이었

지만, 마케팅과 문화와 연관된 일을 찾던 찰나에 커피를 한 3년 3개월 정도 했죠. 지금은 그쪽보다 문화 활동 경력이 훨씬 길어졌죠. 2010년도에 문화기획을 접하게 되었는데, 예원예술문화연구창업대학원을 다니면

서 발효식품엑스포를 했어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문화계에 온 것이 아니라 접점이 있었던 거죠. 커피에서 발효식품 엑스포로 그러다 2011년도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축제에서 문화의집 사람들과 처음으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아태빌리지 매니저였어요. 다섯 개 문화의집이 각국의 나라를 담당했었죠. 우아문화의집이 중국을, 효자문화의집은 필리핀, 인후문화의집이 태국이었고 진북문화의집은 베트남, 그리고 삼천문화의집이 몽골이었어요. 모두 기억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다문화 가족 분들이 자신의 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성심성의껏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축제를 만들었고 문화축제에 재미를 들였던 거 같아요. 사실 축제에서 한 달 계약으로 1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아태빌리지를 운영하면서 사비로 쓴 돈이 200만원이 넘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죠. 그때 했던 축제가 너무 즐거웠고, 그 맛에 빠져 그 다음 소리축제로 갔어요.

첫 문화축제가 문화의집과 함께 라니 정말 인연이 있어요.

소리축제에서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2018년까지 활동하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퇴사를 했어요. 다음 일은 문화관련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문화의집으로 왔죠. 이끌리듯이 그렇게 돌고 돌아온 인연은 작년 우아문화의집 지역문화인력으로 이어졌어요.

우아문화의집의 느낌은 어땠나요?

일을 하면서도 낯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 우아문화의집 상황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첫마중길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도심인 우아동은 첫마중길을 조성하면서 조금씩 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시기였죠. 저는 ‘문화의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아문화의집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문화의집을 간접적으로 만나다 실무를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아문화의집이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 중심으로 동호회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생활 문화 쪽으로 도시재생과 맞물린 첫마중길 활성화, 그리고 주변 집들이나 상가를 문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유주방 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아문화의집에서 진행한 사업은?

작년 우아문화의집 지역문화인력으로 진행한 개인 프로젝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주방을 했어요. 공유주방이 단지 시설만 쉼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청년과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우아동은 청년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니었지만 청년을 포커스로 한 이유가 동생이 남부시장 청년몰 '카페나비 청년몰 1호'를 했어요. 문전성시사업에서 청년이 동력이 되었던 것을 봐왔고 참여도 했었기에 도시재생에서도 청년이 중심이 되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20대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취업도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도 있고, 그래서 공유주방을 통해 음식을 단지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

어요.

총 3회차로 진행한 공유주방은 첫 주에는 모여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청년이 자취를 하기에 어머니의 음식 중에 생각나는 음식에 대한 화제를 던지고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음식을 그 다음 주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주방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음식으로 치유를 하고 싶었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구도심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했어요.

어떤 음식들을 만들었나요?

처음 만들었던 음식은 마파두부였던 거 같고, 그 다음에는 밀푼유나베와 중국음식 두가지를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감바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프터 파티에서는 라면에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활동이 즐거웠었어요.

청년들 중에 기억에 남은 친구가 있나요?

원래 목공 쪽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인데 손재주가 뛰어났어요.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A3용지로 테이블시트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의 그림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번 그림을 남겨달라고 부탁해 그 그림을 공유했어요. 그렇게 성취감을 느꼈어요. 첫마중길에서도 몇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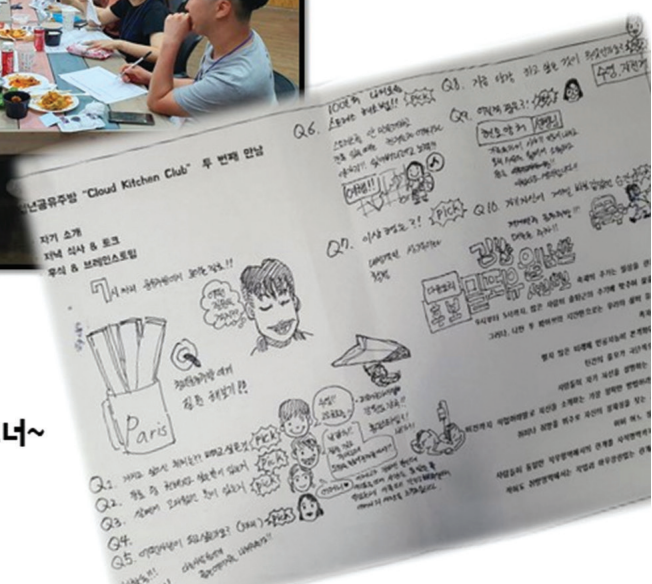


2019.8.20 두번째 레시피토크



첫만남의 어색함은
다들 어디가고?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질문지 뽑아 답하기 코너~





그 중에 또 하나가 생각나요. 당근마켓이라는 온라인중고마켓 앱이 있어요. 연락처가 오픈되지 않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 는 글을 메일로 보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근마켓에서 관심을 보여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당근마켓과 함께하는 첫마중길 역전마켓’을 진행했어요. 그동안에 있던 플리마켓들과 차이는 플리마켓은 보통 수공예 셀럽 분들이 본인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중고마켓을 컨셉으로 ‘테이블도 어울리지 않는다, 돛자리 장터로 가자!’ 그렇게 돛자리를 깔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럼 일반 주민들과 셀럽이 참여하였나요?

그 사업은 철저하게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으로 갔어요. 당근마켓 앱에서 광고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해서 그 공간이 만들어졌죠.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중고품이다 보니 많은 물품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도 팔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물물교환 하는 그 정도만 기대했어요. 그래서 돛자리도 작은 것으로 준비했죠. 이정도로 채우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트렁크를 3~4개씩 가지고와 행거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

집에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역시 마음에 드는 옷과 중고물품을 샀어요. 행사를 하면서 준비했던 저도 재미있었고 참여하신 분들도 11월 말쯤에 진행해서 상당히 추웠을 텐데 3~4시간을 밖에서 있고 아이들도 함께와 텐트에서 놀았어요. 또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파는 분들도 많았어요. 캐리커처도 하고 아이 캐리커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문화의집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반대로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죠. 예전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하면서 문화기획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두 활동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문화기획 쪽 추세는 예술과 상관없는, 여기를 전업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열정페이죠. 돈 보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문화관이 좋고 이 일이 좋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원래 그 정도 받고도 일을 하잖아!’, ‘그래 왔잖아!’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2011년도에 문화의집을 보고 지금의

문화의집을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실무자의 복지라든가,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같이 안쓰러워요. 문화의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일을 하려면 자기 생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우아문화의집의 특징은?

신선했던 건 ‘생활문화’라는 게 광범위하면서도 뭔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잖아요.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문화의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생활문화라는 거예요. 사실 놀이도 생활문화잖아요.

작년 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 전엔 문화기획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우아문화의집에서 시민들과 지역의 주민들, 청년들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획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기획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이란 게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정형화되고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화의집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작은 것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작년 다섯 개 문화의집이 함께 한 ‘수작’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첫마중길에서 각각

의 문화의집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신들의 기획행사를 펼쳤죠. 우아문화의집은 8월 말 여름 끝자락에 여름의 마지막 밤과 미리 만나는 겨울을 컨셉으로 진행했어요.

공예명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지역의 생활의 달인을 주제로 한 코너와 눈 오는 기계를 준비해 눈이 내리고, ‘얼음왕자’라는 제목으로 얼음을 이용한 의자를 만들었어요. 또 지역동호회의 공연과 닭죽, 팔빙수를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는 행사를 했어요. 사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닭죽과 팔빙수를 처음 먹는 것도 아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축제에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 생각과 반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에겐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이 되었어요. 마을 축제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생활문화이기에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거 같아요.

큰 축제와는 확연히 달라요.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큰 축제는 밥상을 미리 차려놓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그런 느낌이라면 생활문화축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동네잔치나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포터락 파티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은 투박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생활 축제들이 더 좋아요.

문화도 그동안 매스 미디어와 같이 대중을 위한 큰 굵기의 문화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작아지고 세분화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활문화센터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보강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해요. 동호회활동을 많이 하지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간대와 같은 제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되어 사람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해요. 그렇게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범위가 커져야 될 거 같아요.

또한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 아쉬워요. 각각의 문화의 집마다 강점이 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홍보에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접근성이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구성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우아문화의집은 첫마중길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첫마중길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소통하면 우아문화의집이 생 각하면 좋겠어요.

우아동은 기존 상권을 지키시는 분들과 새

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유입되는 사람들 그리고 전주역을 통해 한옥마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요. 뭔가 담지 않는 옥석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하지만 분명 가공하면 예쁜 옥석이 될 거예요.

우아문화의집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아문화의집은 매우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에 정말 화목하죠. 적은 인원이 서로 ‘으쌔으쌔!’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뭔가 큰 파이를 가지고 하려면 지금보다 인원 편제가 더 늘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그리고 주변의 협력자가 많아져 되요. 생활문화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생활문화를 비유하면 문화의집은 뼈대를 만들고 찰흙을 붙이고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몫인 거 같아요. 목적의식이 정확히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아문화의집이 선생님에게 어떤 순간이었나요?

쉬고 싶은 기간에 우아문화의집에 와서 일을 했어요. 우아문화의집에서는 일에 치일 정도로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했어요. 저에게는 휴

식의 순간이었죠.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문화축제에서 즐거웠던 그 순간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한 저에게 ‘아, 그래. 이 맛에 문화하지’ 라는 그 즐거움을 일깨워 준, 다시 저를 재충전시키고 힐링을 하였던 순간이었어요.

문화의집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문화기획이라고 해서 문화축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자가 꿈꾸는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문화의집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단순히 둥지로 생각하면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그러니 돈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 즉 이 곳을 테스트 베드라 생각하고 즐기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삶의 여유를 만나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시간가는 줄 몰랐고 또 다른 곳과 달리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우아문화의집은 시간이 남으면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 들렀다가

‘위에 누가 있나’ 쳐다볼 수 있는 우리 집 같은 느낌이 큼니다.”



드럼, 난타, 풍물 프로그램 참여 「해맞이 예술단 동호회」(2002 ~ 현재)

“우아문화의집과 함께 한 시간”

우아문화의집에서 사물놀이와 이것저것 많이 하는 선홍신입니다.

우아문화의집과의 인연은 19년쯤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아문화의집 개관하고 몇 달 후에 풍물을 배우러 갔던 거 같습니다. 그 때 수학학원을 했는데 아이

들 수업이 낮부터 시작돼서 오전시간이 비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 ‘뭘 해볼까’ 하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이 좋아 음악활동을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풍물반에 들어가 장구를 배웠습니다.

그때 남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회

원들이 저보다 누님들이었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즐겁게 1~2년을 배우니 ‘야, 남잔데 오래 버티네!’라며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다 이어서 꿩과리를 배우게 되고, 풍물단에서 상쇠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물놀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물놀이 공연 때가 생각납니다. 사물놀이 공연을 서는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풍물 공연은 여러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니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물놀이는 사람이 적어 내 소리가 내 귀에 잘 들리더군요. 틀렸다는 자책과 속상함에 울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한 우아문화의집의 느낌은 ‘시간이 금방 간다.’, ‘거부감이 없이 다가왔다’ 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시간가는 줄 몰랐고 또 다른 곳과 달리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다른 시설은 특별한 업무가 있어야 가는 곳이라면 우아문화의집은 시간이 남으면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주민 센터 들렀다가 ‘위에 누가 있나’ 쳐다볼 수 있는 우리 집 같은 느낌이 큼니다.

“변화하는 우아문화의집”

처음에는 가족 같은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체계도 잡히지 않

고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많아져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예전엔 농촌적인 느낌이었고, 저는 우아문화의집에서 풍물, 난타를 배웠고 현재는 드럼과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삼천문화의집 행사에서 그룹사운드 공연에 드럼주자가 없다고 해 원정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취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과 문화축제가 우아문화의집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노력한 만큼이 결과가 나지 않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아문화의집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아문화의집이 준 나의 변화”

본래 제 성격이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크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우아문화의집 무대에 오른 것도 덤으로 나갔죠. 풍물 선생님이 ‘가자!’ 해서 ‘풍물

반 숫자가 많으니깐 틀려도 표시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무대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뭔가 남들과 다른 우쭐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넘어가니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있으면 나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예전보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변했습니다.

“태평소와 만나다”

사물놀이에서 썰과리 상쇠를 하고, 어떤 때는 북을 치고, 틈틈이 태평소를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악기를 배우기 된 계기는 장구와 썰과리를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다보니 설자리가 없어져 갔습니다. 농악에서나 사물놀이에서 태평소 비중이 큼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 태평소를 샀습니다. 하지만 3~4년은 한두 번 시도만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보니 태평소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보고 악보도 찾아보면서 독

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문화의 집에 찾아가 빈 공간이 있으면, 연습을 합니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가 문화의집에서 연습을 하고, 한 1년 공부하다보니 어려운건 못하지만 웬만한 건 맞춰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태평소를 처음 불었던 날이 생각합니다. 난타 공연 중간 한두 마디를 태평소로 불었는데 관중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드디어 네가 배운 걸 써먹는구나.’ 스스로에 대견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내 삶을 만들어준 우아문화의집”

우아문화의집은 나에게 삶의 여유를 만들어 준 곳입니다. 우아문화의집을 만나면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준 나를 많이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열정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아니더라도 잠깐 와서 맞춰보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큰 청년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아문화의집 회원_정호경

나에게 익숙하고 그리운 곳

“우아문화의집은 오랜만에 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우아문화의집은 익숙하고
그리운 곳입니다. 어렸을 적 행동반경이 작았던 저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래서 자주 왔던 추억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드림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문화의집에서 놀기

저는 전주고등학교 2학년 정호경이라고 합니다.

“우아문화의집과의 만남”

초등학교 때 드림을 배우러 처음 왔습니다. 드림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었는데 재미있었지만 제가 약간의 음치, 박치다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보니 관심이 적어지고, 수업시간에 문화의집에서 책 빌려다 읽고, 그렇게 선생님은 포기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많은 책을 봤습니 다. ‘해리포터 전집’을 전부 읽고 ‘메이즈러너’라든가 그런 외국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쁘게 꾸며진 우아문화의집은 저에겐 굉장히 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편안함이 있는 곳”

그렇게 책을 읽던 저는 우아문화의집이 즐거웠습니 다. 집에선 다른 미디어가 많다보니 책에 집중하기 어려웠기에 그럴 땐 언제나 문화의집으로 갔습니 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책을 읽었고, 그래서 즐거웠습니 다. 주변에 시립도서관 등 시설이 좋은 장소도 있지만 왠지 편하지 않습니다. 책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최근에 ‘인간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

습니 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한번쯤 꼭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행동들”

저는 기분파여서 길가다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순간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선 점심시간에 걷다가 햇볕이 좋으면 근처 난간에서 한숨 자기도 하고, 길가다 새소리가 들려 아무 생각 없이 소리를 따라가 풀숲에서 병아리를 주어와 키우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힐링이나 하려고 근처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판소리 소리가 들려 가보니 문화의집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구경을 하다 행사 배너가 바람에 쓰러지려고 하기에 그것을 잡아 세웠습니 다. 그 모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문화의집 선생님이 보시고 달려 오셨습니다. 훌쩍 커버린 저를 처음엔 못 알아보시더니, 호경이라고 인사드리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전에 만난 것처럼 “호경아, 문화의집에도 놀러와.”하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걷다가 만난 제가 좋아하는 문화의집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오히려 힐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위한 행동이었던 거 같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우아동은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편의점이 여기저기 생기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옛날에 자주 갔던 슈퍼마켓이 사라졌고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아문화의집은 오랜만에 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우아문화의집은 익숙하고 그리운 곳입니다. 어렸을 적 행동반경이 작았던 저에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자주 왔던 추억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우아문화의집은 편안하고 익숙하고도 그리운 곳입니다.

10대의 저는 문화의집에서 책과 함께 했던 7~8년 후 20대의 저는 책과 함께 전통 악기에 관심이 많기에 우아문화의집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나누며 친해지는지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드럼을 배우러 처음 발을 내딛고, 저의 엄마는 연극 동아리 활동으로, 누나도 엄마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의 가족들은 문화의집에서 함께 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소중한 추억 중의 한부분인 문화의집. 앞으로도 그렇게 저의 인생에 문화의집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아문화의집 회원_최기애

우아문화의집에서 얻은 제2의 인생

“우아문화의집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그러면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가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예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난타, 풍물, 우리춤 프로그램 참여 「달맞이 예술단」 동호회 (2005 ~ 현재)

우아문화의집과는 어떻게 만났나요?

우아문화의집과는 한 17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전에는 우아문화의집을 몰랐어요. 우아문화의집을 소개해주신 분이 큰아들 학부모였어요. ‘장구교실 있으니 같이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그분은 저만 놓고 갔어요.

호호, 그 때 둘째가 6살이어서 아이랑 같이 왔어요. 사실 장구에 관심이 없어서 초기에는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 때마다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챙겨주시고 끌어주셔서 그나마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아문화의집에 대한 첫

느낌이 사실 없어요.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둘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자주 오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고 가끔 봉사도 가고……. 배워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우아문화의 집과 함께 하고 있어요.

문화의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장구를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러다 무용을 배웠고 사물놀이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장구를 배울 땐 장구로, 무용으로, 사물놀이를 그렇게 문화의집에서 배운 활동들이 봉사로 이어졌어요.

몸이 불편하고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 보면 앞으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요청이오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첫 인상이 무용하는 분으로 보였어요.

웬지 한복 입으시면 태가 너무 예뻐서
같아요. 어떤 무용을 하세요?

우리춤이라고 한국무용을 기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용 체조예요. 예전에 오거리 광

장에서 우리춤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그 때 ‘도라지’라는 작품을 배워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선생님이 그 자료를 스크랩해서 주셨던 게 기억에 나요. ‘내가 어떻게 무대에 섰을까’ 나 스스로가 신기해하며 더 재미를 느꼈어요.

그렇게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고 무대에 서는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희열이 나에게 활력소가 되는 거 같아요. 노력을 해야 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대에 오르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 같아요.

공연을 위해선 많은 경비가 들었을 거

같아요. 무대의상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제가 한복바느질을 해서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제 인건비만 들죠. 호호. 재활용센터 가면 한복천이 가끔 나와요. 5천원, 1만원 어치 사다 기존의상을 리폼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재활용을 많이 했어요. 아니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을 거예요.

우아문화의집 만남으로 어떠한

것들이 변화했나요?

우아문화의집에서 제2의 인생을 얻었어요. 저는 부업으로 집에서 한복 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외부와 자연스레 차단이 되었죠. 원래도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였어요. 그러다 우아문화의집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그러
면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가 봐요. 제가 즐
거우니 얼굴이 환해지고, 집에서도 남편바
가지 굵을 일이 없어요. 호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예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아문화의집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가장 뜨거웠던 순간과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뜨거웠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무용을
좋아해요. 춤을 출 때 제일 즐거워요. 보시
는 분들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또 다른
만족감으로 다가와요.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러면 시간에게 맡겨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격인데 시간이 자연스

레 해결해주더라고요. 아픈 마음이 사그라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고 감싸
않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있으세요. 느낌이 다를 거 같아요.

어린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용과 사물놀
이를 가르쳤어요. 가르친다는 게 정말 힘들
더라고요. 예전엔 배우기만 하면 됐는데 가
르치는 입장이 되니 배우시는 분들을 이해
하고, 그분들에 맞춰 어떻게 하면 쉽게 전
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즐겁게 배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더라
고요.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
요.

기억에 남은 공연이 있으세요?

정확한 연도는 생각나지 않지만 우아문화
의집에서 다섯 개 문화의집 농악 팀들이 함
께한 공연이 기억나요. 지금도 농악 팀 연



함 공연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고 즐겼던 건 처음인거 같아요. 다섯 개 농악 팀이 우이동 이곳저곳에서 풍물을 시작해 우아문화의집 주차장에서 모여 함께 가락을 타는 공연이었어요. 농악 팀마다 가락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같은 삼채지만 틀리게 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틀리던 소리가 점점 맞아가는 거예요. ‘어, 소리가 어우러지네!’, ‘소리가 어우러지네!’ 놀라워하며 정말 신명나게 놀았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개인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멈춰 있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쉬다보면 게을리지고 그러다 보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겨내고 연습하면 뿌듯하거든요. 지금이 다들 어질 수 있는 시기 인거 같아요. 연습할 시간이 많으니 저 스스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을 나를 다듬는 시간으로 만들

고 코로나19가 끝나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 1년을 못하다 보니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공연도 하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롤 모델이 저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같이 즐겁게 공연하면서 봉사하며 살면 참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처럼 즐겁게 공연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싶어요.

언제까지 활동하고 싶으세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그냥 하고 싶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예요.

또 우아문화의집이 옛날처럼 국악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나 침체가 되었어요. 우리의 것을 살려야 되잖아요. 활성화 되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해요.

우아문화의집과 함께 하는 사람_ 김삼현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곳

“사사로운,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설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화이고 문화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항상 옆에 있는데 특별한 선물처럼 ‘문화’라고 주면 그 선물을 아껴요, 즐기지 못하게 되죠. 문화는 선물이 아닌 일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전주평생학습관 (2005~현재) 아중문화의집 근무 (2002~2004)

문화의집과는 어떤 연이 있으세요?
2002년도에 아중문화의집에 근무했습니다. 지금의 본 건물이 올라갈 때부터 아중 문화의집 개관 전까지 준비를 했었고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문화의집들이 2002년도에 개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화의집이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아중문

화의집이 여섯 번째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고 관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직원들 두 명 내지 세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중문화의집은 아중택지개발과 관련 아중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위해서 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다른 문화의집이 주민센터에 세를 들어 와있는 형태라고 보면 아중문화의집은 달랐습니다. 아중문화의집을 위한 건물이 지어졌고 인후3동 주민센터가 세를 들어온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규모로 운영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아중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괴리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업무와 문화예술교육업무의 모호한 경계부분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는 교육부사업이 있어 이를 신청했고 선정되어 2005년도에 아중문화의집 이름을 내리고 전주평생학습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문화의집 초창기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 같아요.

에피소드 중에 그 때는 문화의집 직원 급여에 사대보험과 세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로 포함이 안 되었던 겁니다. 노동청을 찾아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직업 분류표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다 비슷한 것으로 맞춰서 사대보험이 가입되고 세금이 나갔던 게 기억납니다.

또 문화의집끼리 연합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집들이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했었습니다. 모든 문화의집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저녁 9시 넘어 퇴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2년에는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이 생소해서 ‘문화의집’이라고 했을 때 문화를 공유한 공간으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내가 요가를 받으면 요가 받는 곳, 노래교실을 하면 노래교실 하는 곳, 이렇게 자기가 배우는 프로그램이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문화의집을 알고계신 분은 ‘나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술적 공간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 내에서 많이 활용하셨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가 뭐하는 곳이야, 문화가 뭐야’ 하셨죠. 사실 문화라는 게 접하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문화를 자연적으로 습득을 해야 문화라고 느껴지는 건데 그것을 특정해서 알려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의집들은 지역행사들을 많이 했고 ‘이것이 문화다’, ‘예술 활동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아, 이게 문화예술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구전으로

지역에 전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문화의집은 무엇이다.’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게끔 다가갔어요.

문화의집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사사로운, 나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설명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화이고 문화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처럼 우리의 삶이 ‘문화가 있는 삶’인 거죠. 문화는 항상 옆에 있는데 특별한 선물처럼 ‘문화’라고 주면 그 선물을 아낍니다. 즐기지 못하게 되죠. 문화는 선물이 아닌 일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화의집 개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동 시간대에 아이나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의집은 그 시대를 관통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고, 그 지역의 거리가 변하듯이 문화의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초창기 우아문화의집을 기억하세요?

우아문화의집과는 아중문화의집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함께 했습니다. 문

화의집 초기에는 함께 월급도 투쟁해보고, 문화의집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등 문화의집의 필요성과 복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04년 문서가 있더라고요.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 관련 자료로 우아문화의집의 운영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아문화의집은 2002년도 3월 4일에 우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왔으며 보조금 지원이 2002~2003년에는 60백만원, 2004년에 65,9백만원 지원되었고, 2002년 29,120명(1일 107명), 2003년 55,424명(1일 151명), 2004년 81,155명(1일 222명)이며, 프로그램 운영 수는 2002년 20개, 2003년 24개, 2004년 3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사항을 바탕으로 재 위탁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의 자료였습니다.

함께한 사업 중엔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우아중, 기린중, 호성중과 함께 청소년사물놀이댄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또 주5일근무제가 2005년부터 전반적으로 진행될 무렵 전주시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천년전주사랑전통체험’을 세 개 문화의집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 우아문화의집에서는 국악과 풍물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산이 많지 않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움직였습

니다. 학교, 지역, 행정시설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에서 본 우아문화의집 변화

테마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입니다. 전에는 국악과 소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2012년도부터 공연문화, 공연예술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모든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지역과 함께 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콘텐츠가 국악, 사물놀이, 공연예술, 스토리텔링, 연극 등으로 변화해온 거죠.

문화의집은 지역과 함께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큰 문화콘텐츠가 아닌 지역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아문화의집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보니 그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중천! 문화놀이터’로 지역을 변신시키고자 했고, 지역명소이야기사업으로 우아지역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현재는 첫마중길이라는 시책사업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선례가 되어 우아지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지금은 공연 관련 콘텐츠들이 천마중길로 나와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많은 유입인자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급변하는 우아동에서 예전엔 지역 내의 인자들만을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진행했다면 지금은 더 큰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스테이지가 커졌습니다.

문화의집이라는 곳이 문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잖아요. 우아동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펌핑해줄 수 있는 곳은 우아문화의 집입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연계는 계속 됩니다. 연계된다는 것은 지역 사람들과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커뮤니티는 네트워크가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연혁이 쌓이고 지역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전주의 문화의집도 내년부터

‘문화의집’ 명칭을 내리고

‘생활문화센터’ 명칭으로 운영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중문화의집도 ‘아, 이걸 버리고 가야하나?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많은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미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안주가 아닌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평생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함이기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로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곡점이 있는지를. 사실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생활문화센터로 바뀌는 것이 기존 문화의 집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닌 뒤집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트렌드에 맞게끔 제시하는 새로운 생활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 것처럼 이 바뀔이 전체를 한번 흔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생활문화를 ‘저녁밥 먹고 마실 나가 내가 문화를 즐기고 올 수 있는 것’ 즉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그 대상층들이 정해져있습니다. 누리는 사람들만이 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경의 프로그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하고 저녁에 가족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그 자체,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센터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 참여하는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좌담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A-로, A+를 만들어주든 부분은 시민들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주어줬을 때 시민들이 ‘우리 지역엔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말하면 그 부분을 귀담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괜찮으니깐 계속 그것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계속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는 우아문화의집

“옛날에는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알려줘,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나만 부지런하면 배울 수 있잖아.
배우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내가 공부해보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
모르면 못 가는데 알면 쪽 가버리잖아.” 안나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안나순 우아문화의집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5년 정도 배웠는데 배우는 도중 제가 많이 아파 수업을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병원 퇴원하면 바로바로 나와서 즐거움을 갖고 공부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공부를 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워요.

장옥순 저 역시도 한글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한지는 5~6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안나순 한글공부 전에는 우아문화의집을 몰랐어요. 모임에서 한글 이야기가 나

와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녔다.’ 라고 했더니, ‘우아문화의집에 가면 무료로 한글을 알려주니 가봐라’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에는 반가웠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창피해서 못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2~3년을 고민하던 중에 아는 언니가 ‘나도 학교를 중퇴해서 글을 모른다. 우리, 가자!’ 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우아문화의집 교실 문을 여니 선생님이 ‘잘 나오셨다! 잘 나오셨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을 받으니 더 용기가 생겼고 오늘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장옥순 저는 배우지 못해서 어디를 가려면 뭔가 땀땀하지 못해요. 기가 죽고, 창피하고,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날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인터넷에서 찾더니 우



전주북초등학교 현장학습 모습

아문화의집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처음 수업을 받는 날 ‘내가 이 곳에서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의집 문을 열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고 한글을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안나순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좋고,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내가 한 자라도 배워 떳떳하게 글도 읽을 수 있고, 은행에 가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문화의집 올 때면 자신감이 생겨요. 또 직원들이 말을 예쁘고 선하게 해요. 어느 위치에 있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한결같아요. 그래서 문화의집은 항상 고맙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 있는데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장옥순 성실하신 선생님과 친절한 문화의집 직원 덕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수업에 와요. 선생님과 문화의집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셔서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

장옥순 어렸을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고생한 기억이 잊히지 않고 모두 생각나요. 그



전주북초등학교 현장학습 모습2

때는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겨울 이맘때쯤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면 물 내려가는 곳은 물이 흐르지만, 그 옆에는 퐁퐁 열렸어요. 그렇게 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 이야기를 쓰면 책 한권은 나올 거 같아요. 공부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없어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기죽지 않고 뚝뚝하게 키우려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안나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데 제가 그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공부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전에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꼬부랑글씨를 썼지만 문화의집에 와서 배운 뒤로는 뚝뚝하게 글을 써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1년 정도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문화의집에 오면 선생님이 계시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집에선 스스로 공부가 안돼요. ‘집안일 끝내고 공부 좀 해야지’ 해도 결국에는 연필도 잡지 않아요.

장옥순 그리고 문화의집에서 공부를 하면 수업내용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 열고 계단 밟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집안일 등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

안나순 내가 모르는 걸 알려 주는 순간이 가장 즐거워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 이거구나. 이래서 배워야한다.’ 그렇게 느껴지면서 즐거워요. 그래서 일주일 중 문화의 집에 가는 날이 가장 행복해요.

장옥순 그렇게 한 자라도 배워 가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붓 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에요.

안나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막을 읽어봐요. 그렇게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나의 즐거움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엔 ‘내가 못 배웠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은 가르치자’ 라는 마음에 열심히 일만 했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 언니에게 추천을 했어요. 언니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 반응은 ‘이제 글은 배

워서 뭐하냐?’ 이었어요. 서운했지만 1년을 설득해서 언니가 수업에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는 언니가 더 좋아 죽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녀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호호.

기억에 남는 순간

안나순 문화의집 행사가 있을 때면 그렇게 잘해 줄 수 없어요. 음식을 만들면 항상 챙겨주세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민요를 부르며 부채춤을 추고, 장구도 치고, 기타연주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김밥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 재료를 모두 준비해주시고 우리는 김밥을 쌓아서 먹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꼭 참여해요. 그러면 행사에 참여한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어쩔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냐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감사하죠.

장옥순 저도 문화의집 행사가 있을 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우아문화의집 성인문해수업 자랑

안나순 동산동에서 공부를 하러 오시는 언니가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데도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큰 언니가 열심히 공

부를 하시니 우리가 쉬엄쉬엄 할 수가 없어요. 또 열정적인 선생님이 계셔서 절대로 수업을 빠지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가 알 때까지 복습을 해요. 먼저 배운 사람은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수업을 빠졌던 학생도 배울 수 있어 좋아요. 우리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지만 서로 돈독해요. 함께 공부하는 학생이자 인생 선후배이며, 인생의 친구 같아요.

수업에 왔다가 못 배우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하소연하며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해보니까 자꾸 하다보면 들어와. 얼마나 좋아! 우리가 가 방 들고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처음 공부하러 갈 때는 창피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공부하러 간다고 말해.

우리 될 수 있으면 배우자! 알아서 남 주느냐! 옛날에는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알려줘.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나만 부지런하면 배울 수 있잖아. 배우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내가 공부해보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 모르면 못 가는데 알면 쭉 가버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래,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장옥순 나순언니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요. 호호.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많이들 숨기는 거 같아요. 저 역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마음에만 담아놓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같은 또래를 만나도 떳떳하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멀리하고 같은 나이의 친구인데도 존댓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우아문화의집에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펴지고 있어요. 저처럼 마음에만 담아두신 분들이 빨리 이 곳에 오셔서 한글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아문화의집을 알기 전과 후의 변화

안나순 문화의집에 와서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싸움이 줄어들었어요. 남편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우아문화의집에 나가는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장옥순 우아문화의집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요. 선생님도 좋으시고 수

업 중에 해주시는 말씀과 한글공부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또 함께 공부하는 언니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생겨요. 그래서 기분이 날아갈 거 같아요. 문화의 집에 오면 엔도르핀이 돈다고 할까? 머리가 가벼워요. 주부들이 밖에 나가면 막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문화의집으로 오라고 문화의집 선생님들이 말해주세요. 작은 도서관에 책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잘 준비되어 있어 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일이 없어도, 수업이 없어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수고스럽게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문화의집의 선생님들은 문화의집에 오시면 더 반갑다고 말씀해주세요. 문화의집은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고요.

우아문화의집에 바라는 점과 앞으로 목표

장옥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많아져 우리 같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착착 받아쓸 정도로 신력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안나순 저는 한글만 똑바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책을 봐도 착착 읽을 수 있고, 누가 말하면 착착 쓸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한글을 배우러 온 사람들과 기존에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준별 반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장옥순 항상 문화의집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아문화의집 회원_ 김가연

우아문화의집은 나의 유레카

“‘우아문화의집에서 배우고 있고, 드럼을 배우고 싶으면 문화의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다. ‘내가 열심히 배운 드럼이 좋은 특기가 되어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드럼, 하모니카, 풍물 프로그램 참여 사물놀이 「얼쑤」 동호회

“우아문화의집은 유레카였다”

8년 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윤도현 밴드 공연을 봤다. 그때 드럼소리에 반했다. 공연을 보는 내내 가슴이 쿵쥔거렸다. ‘드럼이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아문화의집을 알지 못했다.

막연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주민센터에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드럼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유레카’였다. 소리 나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고 그날부터 드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드럼은 8년

이 지난 지금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신기하다.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관심이 없던 나였는데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지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의집 드럼 수업은 금요일에 있다. 8년간 금요일은 항상 문화의집에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8년 동안 수업에 빠지는 일 없이 꾸준히 나오기 어렵지 않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배우고자 하면 서울이라고 못 가겠냐. 상종만 아니면 문화의집에 나가는 사람은 나일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인들과 찾아갔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드럼을 보게 되었다. 같이 간 일행이 '어, 이 분 드럼 잘 치는데'라는 말을 했고 어느 순간 즉흥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계셨던 손님 중 한 분이 기타를 치고 내가 드럼을 연주했다. 카페가 공연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환소성이 들리고, 함께 자리 했던 남편도 '이런 실력인지 몰랐다.'며 감탄해했다.

연주가 끝나고 아나운서가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 보시 길래 '우아문화의집에서 배우고 있고, 드럼을 배우고 싶으면 문화의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다. '내가 열심히 배운 드럼이 좋은 특기가 되어 이렇게 자랑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드럼은 끈기가 없으면, 내가 즐기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악기인 것 같다. 수업을 받는 동안 드럼을 배우다 그만두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드럼은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드럼에 대한 환상이 있다. 빨리 악기 앞에 앉아 멋지게 소리 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빨리 배우기 힘든 악기가 드럼인 것이다.

처음 드럼을 배울 때 패드로 손에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리듬을 타는 연습이기도 한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리고 한눈팔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데로만 연습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악보가 한 가득이 되었다.

우리 드럼 반에는 현재 8명의 회원이 계신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다. 그 중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그 분은 드럼을 배우기 위해 일반음악학원을 2년 정도 다녔는데 기본 박자도 치기 힘들었다고 한다.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우아문화의집을 보게 되었고 이 곳에 오셨다. 드럼 치는 아빠에게 따님이 자기 결혼식 때 아빠가 드럼을 쳐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우신다. 그리고 드럼반의 회장이 되셨다. 회원들의 실력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나도 박수치고 선생님도 박수를 친다. 서로에게 응원

하며 재미나게 배우고 있다.

“우아문화의집에서 소리에 반하다”

우아문화의집에서 드럼을 만났고 장구를 만나고 하모니카를 만났다. 모두 소리에 반해 배우게 되었다. 장구는 3년 전에 만났다. 드럼을 치고 있는데 장구소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배우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무실에 요청을 드렸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물놀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젊은 선생님이신데 어려운 가락을 하나하나 하는데 회원들이 따라하게끔 만들어 준다. 어려운 것을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을 ‘고수’라 말하는데 진정 ‘고수’이신 거 같다. 장구는 드럼과 다르게 다가온다. 장구를 치면 심장이 울린다고 해야 할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가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곤두서고 정말 희한한 느낌이다. 사물놀이를 완곡하고 나면 ‘나도 작두 탈 거 같다!’ 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그 정도로 흥이 올라온다. 그러면 선생님은 ‘죽기 전에 작두 한번 제대로 타보자!’ 라고 맞장구를 치신다. 같은 타악기인데도 드럼은 감성을 자극하고 장구는 심장을 울린다.

하모니카는 장구수업 중에 소리로 만났다. 나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리였다. 그렇게 하모니카도 배우게 되었고 현재까지 배우고 있다.

“선생님 복이 많다”

나는 선생님 복이 많다. ‘학생들도 훌륭해야 하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다.’ 라고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한다. 드럼 선생님, 사물놀이 선생님, 하모니카 선생님 모두 너무나 감사하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강해서 인지 선생님들이 나를 처음 보고 ‘가르치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들과 술 한 잔씩 할 수 있는 편한 사이가 되었다. 가끔 선생님들께 안부전화를 드린다. 그러면 수화기 너머로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과 수업이 모두 멈춘 지금 선생님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팬스레 ‘코로나가 빨리 풀려 선생님과 함께 신력 발휘를 해야 할 텐데요.’ 라며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넨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 선생님도 나도 함께 웃으며 즐겁게 수업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 3년 전쯤 효자동의 야외무대에서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 ‘찬찬찬’, ‘조용필 노래’ 와 ‘김용림의 열두 줄’ 을 준비했다. 드럼을 연주하는데 관

객석에서 모두 노래를 따라 불렀다. 정말 즐겁게 연주했다.

공연을 마치고 MC가 나를 무대 중앙에 불러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 ‘우아문화의집에서 좋으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음향팀에게 ‘드럼을 신나게 잘 친다. 아마추어지만 너무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들었다.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은 거 같아 뿌듯했다.

사물놀이는 아직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갈 기회는 있었지만 스스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늉만 하는 건 싫다. 무대에서 쓰러질망정 제대로 하고 싶다.

아무리 잘해도 무대에 오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장구 소리가 제대로 날 정도로 내 실력을 갖고 닦아서 무대에 오르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다. 한 가지 속상한 건 주민센터에 무료장구수업이 생겨 회원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선생님에게 어려운 것 가르치지 말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길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제가 재미를 느끼지 못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죠’ 라고 말하셨다. 수업하는 때 시간이 진심어지고 그 시간을 나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

님의 진가를 알게 되고 같이 심장의 울림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모니카는 선생님과 듀엣으로 공연했던 게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베이스, 내가 멜로디를 연주 했다. 우아문화의집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공연을 했다.

“우아문화의집은 나에게 ‘우연’ 이 아니라 ‘필연’ 이었다.”

우아문화의집을 처음 보았을 때 여느 카페 같이 멋졌다. 수업을 배우는 장소는 조명이 세련한 준비된 공연장 같았다. 우아문화의 집에서 배우고 활동하면서 이 곳은 한 사람만 잘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라고 느껴진다. 또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인 거 같다. 우연하게 우아문화의집을 알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필연’인 곳이다. 우아문화의집과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인연이다.

기회를 주는 곳

“한글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한글은 저한테 삶의 의미라고 해야 하나? 언제나 한글을 좋아했고 그 매력에 빠졌어요. 40대가 된 나에게 한글은 언제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캘리그래피, 문인화 프로그램 참여 「빛 솔 먹그림」 동호회 (2018~현재)

어떻게 캘리그래피를 하게 되었나요?
캘리그래피에 흥미가 생겼던 이유는 ‘한글’
이었어요.
저는 한글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또렷하

게 기억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알아가는
자체가 흥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
런 세상이 있다니!’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



어요. 한글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한글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받았던 한글에 대한 강렬함은 평생 나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가 한글에서 받았던 경험을 아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배웠던 방식대로 기억, 니은부터 차근차근 한글을 가르쳤어요. 너무 보람 있었어요.

한글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한글은 저한테 삶의 의미라고 해야 하나? 언제나 한글을 좋아했고 그 매력에 빠졌어요.

40대가 된 나에게 한글은 언제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인지 캘리그래피를 알지 못했을 때도 제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캘리그래피를 좋아하고 관심만 있었지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처음 캘리그래피를 배울 때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는 거 같다. 배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우아문화의집에서 전문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캘리그래피 전문과정은 3급, 2급, 1급으로 한 단계가 3개월 과정이에요. 각 단계를 취득해서 2018년도부터 강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캘리그래피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캘리그래피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글씨체가 나와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매번 달라지는 글씨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글씨는 밤새도록 써도 내가 원하는 글씨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똑같은 글귀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내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오겠지’라는 마음에 또 재미있는 거예요. 아직은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글씨가 나온 적이 없어요.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생들을 만났나요?

어른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강사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활동하다보니 수강생들의 글씨를 보면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보여요. 제가 가르치지만 수강생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워요.

처음 만났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첫날 수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경험이 없다보니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돌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보통 첫날은 흥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오래 앉아있는데 저학년이다 보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함께 할수록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

한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으로, 저와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재작년에 학교의 학부모님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 열정적이었어요. 만족도도 높았고요. 수업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가르치면서 이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나에게 공부가 되었던 시간인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를 거치니 캘리그래피가 더 하고 싶어져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처음 수업 했던 학생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뵈는데도 아이들이 ‘수업다시 하고 싶어요.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의례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진심으로 받아드렸거든요. 기분이 묘했어요. ‘아이들과 내가 소통했구나! 인상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

다 받는 게 더 많다고 늘 생각해요. 아이들을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개념으로 하지 않아요. 단순히 글씨를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아이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시무룩하게 있으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며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하지만 함께하고 있어요.

문인화 활동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문인화를 시작한 계기는 캘리그래피를 하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배우게 된 부분이 커요.

문인화는 사군자부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문인화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단순히 ‘사군자를 그린다’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처음 난을 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원하는 난이 나오지 않고 또 난만 계속 그리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걸 계속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더라고요.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게 난을 치고, 매화를 그리고, 국화는 작년에 거의 6개월을 했어요. 문인화를 만2년 배우고 있지만 아직 사군자를 끝내지 못했어요. 지금은 대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할 뻔 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지 몰랐기에 ‘어쩌면 내가 설بری 배우겠다고 한 건가?’라는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배우는 회원이 저를 다잡아주셨어요. 제가 안 나올 거 같으면 ‘다음 시간에 또 보자!’라고 북돋아주셔서 계속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문인화를 함께 그리시는 회원이 7명이예요. 물론 그림을 그리러 왔지만 사적인 것도 공유를 하면서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이렇게 그리면 좋을 거 같아’라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문인화 전시회를 준비하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서로 독려하고, 피드백도 많이 하고, 으샤으샤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전시회도 할 수 있었어요.

문인화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빛솔먹그림’ 동호회로 변화했어요. 2019년도에 전주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이 있어 이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문인화 전시회를 처음 진행했어요. 작년 역시 동호회관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갤러리 ‘소소’에서 9월28일부터 10월 말까지 정기 전시회를 진행했어요. 올해도 하반기 정도에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지만 매년 꼭 정기전



전시회를 하자는 목표가 있어요.

프로그램과 동호회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전시회를 진행했던 부분이 커요. 프로그램은 힐링을 위한 단순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동호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문인회를 공부하는 과정은 같지만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그러한 과정을 함께하기에 동호회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이를 전시하면서 성취감이 곱절로 커졌어요. 전시회를 하고 나니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전문 예술인으로 키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잘 그린다'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성장된 '예술인'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뜨거웠던 순간은?

2020년은 코로나로 수업을 못하다 보니 ‘이 시기에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많이 쓰자!’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자, 뭘 하나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문인화도 입선을 하고, 캘리그라피도 전라북도미술대전과 서예전람회 공모전에서 입선을 했어요. 그렇게 공모전을 통해 자신감도 많이 얻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구나.’ 하는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2020년이 의미가 있어요.

올해 나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림이든 글씨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전시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전시기간 마지막 기간에 대면전시로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에 올 수 없었죠. 2021년도는 작년보다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머물러있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 우아문화의집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편안한 느낌도 있고요. 문화의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뭔가를 하나 더 배워가야지!’라는 기대를 해요. 제가 동호회에서 막내인테 인생선배님들께 많은 피드백을 받아요.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태도를 배워가고, 단순히 그림만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선배님인 동호회회원들과 선생님께 ‘인간’으로써의 삶을 배웠기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우아문화의집에서 많이 배워가요. 그게 너무 좋아요. 늘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허투루 다니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으면...



보태니컬아트 프로그램 참여

아이를 키우며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글보다 그림이 좋아, 책을 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책 속에서 피어난 꽃을 보면 실물보다 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림에는 작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런지 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나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선택 용기를 내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있었는데 우아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그램 중 보태니컬 아트가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리는 꽃그림은 그림의 세계로 입문하는 나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 시간씩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꽃잎 한 장이 완성될 때마다 내가 꽃을 피운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손끝에서 꽃대가 올라가고 그 꽃대에서 꽃봉오리가 맺어지는 그 느낌은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감정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제 갈 길을 가고 헛헛



한 일상이 도전의 나날이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의 그림에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문화, 예술』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문화의 집인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하면 거창하고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처럼 느껴지는데 문화의 집이 그런 거리감을 좁혀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꿈을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통해 입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꿈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아문화의 집을 오가며 누렸습니다. 햇살 가득 들어오는 곳에 놓인 예쁜 책상, 책꽂이에 가득한 책이 있는 공간. 편안한 사람과 공간. 자투리 시간에 이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일을 계획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읽으며 쉬기도 하는 곳. 제게 우아문화의 집은 마음의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우아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소시민들이 품고 있는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문화의집 20년

우아문화의집 편

발행처 | 전주문화의집협회

발행인 | 한천수

글쓴이 | 성기석, 임연정, 신혁희, 유경미

발행일 | 2021.02.26.

디자인 | ㈜이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주문화의집협회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